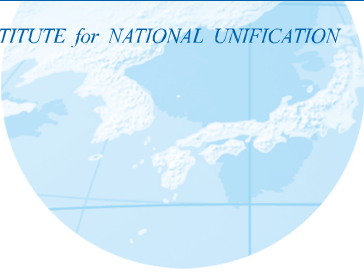




# 월간 북한동향

제7권 제1호 (2013년 1·2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월간 북한동향

제7권 제1호 (2013년 1·2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Contents

## 1 January 2013

---

❶ 주차_1.01-1.06	1. 대내 동향 ..... 6 가. 정치   나. 군사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12
	3. 대남 동향 ..... 14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❷ 주차_1.07-1.13	1. 대내 동향 ..... 18 가. 정치   나. 군사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23
	3. 대남 동향 ..... 27
❸ 주차_1.14-1.20	1. 대내 동향 ..... 30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34
	3. 대남 동향 ..... 39
❹ 주차_1.21-1.27	1. 대내 동향 ..... 42 가. 정치   나.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45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51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❺ 주차_1.28-1.31	1. 대내 동향 ..... 54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57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60

인쇄: 2013년 3월 발행: 2013년 3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북한연구센터 편집간사: 윤훈희 연구원  
 등록: 제2-02361호(97.4.23)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900-4300 / (직통) 901-2525 /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인쇄: (주) 예원기획 02)745-8090  
 <비매품>

## 2 February 2013

❶ 주차_2.01-2.03	1. 대내 동향 ..... 64 가. 정치   나.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66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70
❷ 주차_2.04-2.10	1. 대내 동향 ..... 72 가. 정치   나. 군사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75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81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❸ 주차_2.11-2.17	1. 대내 동향 ..... 86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90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97
❹ 주차_2.18-2.24	1. 대내 동향 ..... 100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106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112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❺ 주차_2.25-2.28	1. 대내 동향 ..... 116 가. 정치   나. 군사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121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123
■ 1월 일지 / 126	
■ 2월 일지 / 128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01-1.06

1월

1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군사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北 김정은 육성 신년사…남북공동선언 이행 강조(종합)(1/1, 조선중앙TV)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일 남북간 대결 상태 해소와 이를 위한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TV를 비롯한 매체를 통해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이날 북한 매체를 통해 중계된 육성 신년사에서 “나라의 분열 상태를 종식시키고 통일을 이룩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 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것은 북남관계를 진전시키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 전제”라고 밝힘.
  - 김 제1위원장은 대외문제와 관련해 “공화국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핵문제 등 북미관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음.
  - 그는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되어 올해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며 인민생활 향상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농업과 경공업은 여전히 올해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이라고 밝힘.
  - 올해 관심을 끄는 북한의 경제개혁과 관련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지도와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며 “경제관리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해 나가며 여러 단위에서 창조된 좋은 경험들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해야 하겠다”고 지적함.
- 北김정은, 공연 관람·금수산 참배로 올해 첫 활동(종합)(1/1,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1일 0시 모란봉악단의 신년경축공연 관람으로 새해 첫 공식활동을 시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은 “1월1일 정각 0시, 송년의 마지막 한 초가 주체102(2013)년의 첫 시각으로 이어졌다”며 “김정은 원수님께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 외국손님과 새해의 축배잔을 나눴다”고 소개함.
- 이어 김 제1위원장 부부는 공연장에서 여성중창 ‘빛나는 조국’, 경음악과 노래 ‘설눈아 내려라’, 여성독창 ‘불타는 삶을 우린 사랑해’ 등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한 후,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에게 참배했다고 밝힘.
- 조선중앙방송은 김 제1위원장이 김 주석과 김 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영생홀’을 찾아 인사를 했으며 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 위원회,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동명의로 화환을 헌화했다고 소개함.

● **北노동신문, 김정은 신년사 핵심은 “경제강국 건설”(1/2, 노동신문; 조선신보)**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9년 만에 발표한 최고지도자 육성 신년사에서 가장 강조한 내용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부흥이라는 점을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매체가 2일 확인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강성국가건설에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는 사설에서 “김정은 원수님의 신년사를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것은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책임적 사업”이라고 밝힘.
- 북한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역시 이날 신년사 해설 기사를 통해 “2012년 위성발사, 그다음 단계의 목표는 이미 예고돼 있다”며 “인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감할 수 있는 경제부흥구상의 결실을 맺는 것”이라고 설명함.

● **北, 탈북자 처벌 강화…벌금도 부과 가능(1/2, 연합뉴스)**

- 북한이 탈북자에게 기존의 인신구속형 형벌에 더해 벌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된 것으로 2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뉴스가 이날 입수한 북한 개정 형법에 따르면 북한은 2009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4월 28일과 7월 21일, 10월 1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형법을 개정했는데, 마지막 형법 개정에서 제27조 ‘형벌의 종류’에



‘별금형’을 추가했고, 제28조를 통해 부가형벌의 하나인 별금형을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北로켓발사 과학자·기술자, 평양 떠나(1/4,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첫 실용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3호 2호기’의 발사 성공에 이바지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꾼들이 14일 평양 체류 일정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4일 보도함.
-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인공지구위성 발사 성공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꾼들이 오늘 평양을 출발했다”며 “선군 조선의 종합적 국력을 만방에 과시한 우리의 미더운 과학자, 기술자들을 떠나보내는 수도 평양은 뜨거운 환송 분위기에 넘쳐 있었다”고 전함.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현영철 군 총참모장 등 고위간부가 이들을 전송했고 과학자, 기술자 등을 태운 버스가 평양 고려호텔을 떠나 도로를 지날 때 곳곳에서 축하와 환송이 목소리가 터져나왔다고 중앙방송은 소개함.

● 北전역, 김정은 육성 신년사 ‘열공’(1/5, 노동신문)

- 북한 전역에 지난 1일 발표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첫 육성 신년사를 ‘학습’하고 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5일 전함.
- 신문은 “김정은 원수님의 역사적인 첫 신년사에 대한 학습 열풍으로 전당이 끓고 있다”며 신년사 학습에 힘을 쏟는 여러 기관을 소개했으며 “석탄공업성, 금속공업성 당조직 일꾼(간부)들의 학습열의가 높다”며 “석탄공업성의 일꾼들은 신년사 학습을 한해 전투목표 수립과 밀접히 결부해 실속있게 진행해나가고 있다”고 밝힘.
- 신문은 평양시당을 비롯해 함경남도당, 평안남도당, 자강도당, 강원도당, 황해남도당에서 신년사 학습을 하고 있다며 “이 밖에도 함경북도, 양강도, 평안북도, 남포시를 비롯한 각지 당조직 일꾼들은 원수님의 신년사 학습을 일거리를 찾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해 실속있게 진행해나가고 있다”고 북한의 신년사 학습 분위기를 전함.

● 北, 평양서 신년사 관철 10만 군중대회 개최(1/5,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 북한은 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 10여만 명의 평양시민을 모아놓고 '김정은 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한 과업 관철을 위한 평양시 군중대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가 전함
- 이날 군중대회 주석단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김기남·최태복·곽범기 노동당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리병삼 조선인민내무군 정치국장 등 노동당과 내각, 근로단체 간부가 참석함.

● 北, 로켓 발사 공로자 '영웅 만들기'(1/6, 연합뉴스)

- 북한은 지난해 12월12일 로켓 발사에 성공한 이후 이 프로젝트에 이바지한 과학자·기술자 등 공로자를 평양으로 초청해 20여 일간 머무르도록 하면서 영웅대접을 베풀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들은 작년 12월1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초청으로 평양에 도착해 다음날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주기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하는 것으로부터 공식일정을 시작했으며 특히 추모대회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바로 옆자리에 로켓 개발 총책임 최춘식 제2차연과학원장을 앉히며 위성 발사 공로자를 부각함.

■ 김정은동향

- 1/1, 김정은-리설주, 1.1 모란봉악단 신년 경축공연 '당을 따라 끝까지' 관람(1.1,중통·중방·평방)
-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장성택, 현영철, 김격식,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김영춘, 양형섭, 강석주, 현철해, 김원홍, 리명수,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곽범기, 문경덕, 주규창, 김창섭, 로두철, 리병삼, 조연준, 최춘식 등

■ 기타 (대내 정치)

- 黨 중앙위·黨 중앙군사위·국방위 감사문을 은하수관현악단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전달하는 모임, 1.2 김기남 등 참가하 은하수극장에서 진행(1.3,중방)
- 최영림(내각총리), 평안남도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와 2.8직동청년탄광 현지요해(1.4,중통)
- 인민무력부, 1.4 '김정은 신년사 과업관철 군인결기모임' 4.25문화회관에서 진행(1.4,중통)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보고), 현영철(軍 총참모장), 김격식(인민무력부장), 현철해(제1부부장) 등 참가

- 우주공간기술위에 '김정일훈장'을 수여하는 모임, 1.4 김영남·박도춘 등 참가 下 진행(1.4,중방)
- 김정은의 '신년사 과업관철' 평양시 군중대회, 1.5 리일환(평양시黨委 비서/ 사회) 및 10여만 근로자들 참가下 김일성광장에서 진행(1.5,중방·중통)
- 주석단 : 김영남, 최영림,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곽범기, 문경덕(평양시黨 책임비서, 보고), 로두철, 리병삼

## 나. 군사

### ● 北, '로켓 발사' 우주공간기술위에 김정일훈장(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일 '광명성 3호 2호기'의 발사를 성공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에 대해 김정일훈장을 수여하기로 하는 정령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전함.
- 정령은 '광명성 3호 2호기'의 발사 성공을 '5천년 민족사의 특대사변이자 전 인민적 대경사'로 규정하고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나라의 첫 실용위성 발사를 성공시킨 쾌승을 이룩해 위대한 장군님(김정일)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고 백두산대국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온 세계에 힘있게 과시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했다"고 평가함.

## 다. 사회문화

### ● 北 더 매서운 한파...평양 관문 남포항 '꽁꽁'(1/3, 연합뉴스)

- 한반도에 강추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북한 평양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남포항을 비롯한 평안도 앞바다가 꽁꽁 얼어붙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3일 전함.
- 3일 오후 1시 천리안위성 해양탐재체(GOCI)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남쪽으로 대동강 하류부터 북쪽으로 압록강 하류 신의주까지 서한만 전역에 얼음층이 형성됐으며, 서한만은 해안에서 50km 부근 해상까지 해빙(海水)이 탐지됐다고 전함.

● 北 “모란봉악단, 보천보전자악단 계승”(1/3,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3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가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및 예술인들에게 감사문을 전달하는 모임을 열었다며 행사 토론자들이 “원수님(김정은)께서 장군님(김정일)께서 꾸리신 보천보전자악단을 계승하여 우리식의 새로운 경음악단을 몸소 무어주시고(구성하고) 악단의 명칭에 장군님께서 좋아하시던 모란봉이라는 이름을 달아줬다”고 언급했다고 전함.
- 토론자들은 또 “(김정은이) 선군혁명 영도의 그 바쁜신 속에서도 새로 태어난 악단의 시연회와 공연을 지도하시면서 예술창조 사업의 원칙과 방법으로부터 공연의 주제와 형상 요소들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가르쳐 주셨다”고 주장함.

● 北아동 28%는 발육부진(1/5,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5세 미만 어린이 중 여전히 28%가 발육장애이며 15%는 체중미달 상태로 나타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전함.
- 북한 당국이 유엔에 보고한 영양조사 예비보고서에 따르면 나이에 비해 키가 작은 발육장애 어린이의 비율은 27.9%로, 3년 전 32.4%보다 다소 감소했으며 나이에 비해 체중이 적은 체중미달 어린이의 비율도 3년 전 20%대에서 15%로 줄었음.

● 북한 김정은 집권 후 탈북자 크게 감소(1/4, 르몽드)

- 북한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국으로 오는 탈북자들이 크게 감소했다고 프랑스의 유력 신문 르 몽드가 4일 보도함.
- 르 몽드는 이날 도쿄발 기사에서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집권 이후 국경 통제를 대폭 강화했다며 이렇게 전함.

●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 더 어려워져(1/5, 뉴욕타임스(NYT))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이후 주민들의 탈북이 더 어려워졌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보도함.
- 신문은 북한 주민들의 탈북과 남한 정착을 지원하는 인권운동가 김성은(48) 목사의 말을 인용해 탈북자들을 위해 북중 경계지역 북한 병사들에게 쥐야 하는 뇌물 액수가 높아지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함.

- **北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새 단장(1/6,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새해를 맞아 인터넷 홈페이지를 세련되게 개편했다고 연합뉴스가 6일 전함.
  - 뉴스가 조선중앙통신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화면 상단에 지난해 북한 선수들의 런던올림픽 수상, 희천발전소 준공,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4월 15일)을 기념한 '축포야회(불꽃놀이)' 등의 장면을 담은 사진 20여 장을 편집한 부분이 신설됐고 이 사진들을 각각 클릭하면 관련된 설명으로 연결됨.
  - 조선중앙통신의 기존 홈페이지는 글 기사 위주로 편집이 단순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사진과 영상 등 시각적 효과를 강화한 것이 특징임.
  
- **북한전문가들, 이제 출산도 공부해야 할 판(1/6, 르몽드)**
  - 프랑스의 유력 신문 르 몽드는 6일 한국에서 북한 퍼스트레이디 리설주의 출산설이 무성하다고 보도했다고 전함.
  - 르 몽드는 한국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작년 10월부터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후 여러 소문이 나돌았다며 한국 언론은 최근 보도된 리설주의 '날씬해진' 모습의 사진과 TV 화면 등을 토대로 출산설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음.

## 2 대외 관계

- **중국 투먼, 북한 애니메이션 제작 인력 도입(1/1, 애니메이션산업망(動漫産業網))**
  - 중국이 북한과 접경한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투먼(圖門)시에 북한 애니메이션 인력을 도입해 관련 산업 촉진을 꾀하고 있다고 중국 애니메이션산업망(動漫産業網)이 1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투먼시 청하오미디어제작(誠皓媒體制作)유한회사는 지난해 8월 투먼시 경제개발구에 입주해 자본금 40만 위안(약 7천만원) 규모의 애니메이션 제작 외주업체를 설립함.

- **北고려항공, 베이징-평양 노선 주 5회로 증편(1/3,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고려항공이 베이징에서 출발해 평양으로 들어가는 노선을 주 5회로 증편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함.
  - 중국에 사무실을 둔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Young Pioneer Tours)’는 “원래 고려항공은 일주일에 3회 베이징발 여객기를 운항했다”며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 고려항공을 이용해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갈 수 있다고 전함.
  
- **北 “美 도발책동 세계에 위협”…새해 첫 대미 언급(1/4,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미제의 새로운 조선전쟁도발책동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미국이 북한에 대한 무력 침공을 발판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고 비난함.
  - 신문은 이날 국제면(6면)에 게재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한 투쟁’이라는 글에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핵전쟁 위협이 가장 짙은 곳인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근원이 제거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함.
  - 신문은 이어 “미제는 제2조선전쟁을 준비함에 있어 남조선을 거점으로 삼고 여기에 침략무력을 집중전개하는 것과 함께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 및 하와이를 비롯한 넓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까지 방대한 무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조선반도정세를 긴장하게 만들고 전쟁위험을 산생시키는 근원은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그로 인한 조선의 분열에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간접적으로 거론함.

기타 (대외 일반)

- ‘쿠바 혁명승리의 날(1.1)’ 관련 “반제자주, 사회주의 길로 나가고 있는 쿠바 인민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연대성 표명(1.2,중통·노동신문/쿠바 인민의 정의의 위업)
- 발전도상 나라들은 ‘미국 등 서방세력의 경제적 예측과 약탈을 반대하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남남협조를 강화해 공동번영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1.3,중통·노동신문/남남협조를 위한 발전도상 나라들의 노력)

###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北국방위 “南당국, 대결과 대화 중 선택해야”(1/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일 이명박 정권이 연초부터 동족대결 정책을 펴고 있다며 남한 정부가 대결과 평화 가운데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함.
  -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전날 북방한계선(NLL) 사수 발언과 김관진 국방장관의 새해 첫 장관 서신, 서부전선 애기봉의 등탑 점등 등을 언급하고 “새해 벽두에 나타난 이명박 역적패당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과 관련해 몇 가지 입장을 천명한다”며 “보수와 대결에 체질화된 반역의 무리들은 그대로 살아 숨 쉬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힘.
  - 대변인은 이어 “오늘 북남관계는 지난 5년처럼 또다시 대결과 전쟁이나, 아니면 대화와 평화나 하는 엄숙한 기로에 놓여 있다”며 “남조선 당국은 책임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北 “남북관계 바로잡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1/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3일 남북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주장함.
  - 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1일 북방한계선(NLL) 사수 발언 등을 언급하고 남한 당국이 연초부터 동족대결에 매달리고 비난하고 “북남관계를 바로잡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하루 빨리 실현하는 것은 전체 조선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염원이며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밝힘.
  - 또 “민족의 재난을 막으려면 온 겨레가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밑에(아래) 힘을 합쳐 반통일대결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며 “우리는 남조선 당국의 금후 태도를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함.
  
- 北, 南정부 연일 비난…“파멸 면치 못할 것”(1/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일 논평에서 지난 1일 이명박 대통령의 북방한계

선(NLL) 사수 발언, 북한의 성동격서(聲東擊西)식 도발 가능성에 대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발언, 보수단체의 대북전단지 살포 등을 거론하고 “역적패당의 대결광란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동족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자들은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함.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전날 남한 당국이 연초부터 동족대결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하며 남한의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2일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도 담화에서 남한 정부가 대결과 대화 사이에서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함.

● 北, 통일열기 점화...南차기정부에 유화 제스처(1/6, 노동신문;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정권이 새해 들어 통일 분위기를 고조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모란봉악단의 신년 경축공연 ‘당을 따라 끝까지’가 연일 진행되고 있다며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삼천리 강토 위에 통일되고 번영되는 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울 겨레의 의지를 반영한 여성중창 ‘백두와 한나(한라)는 내 조국’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 6·15’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는 공연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고 밝힘.
- 신문은 4일 ‘조국통일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이 겪는 고통과 불행 을 하루빨리 가시기 위해서도 사활적인 과제”라고 강조함.
- 5일 ‘백두산 위인들의 필생의 염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통일이 김 주석과 김 위원장이 간곡한 유훈이라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北 조평통, 천영우 수석 원색 비난(1/6,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6일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을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했고 연합뉴스가 전함.



- 조평통 서기국은 이날 '보도'에서 지난 4일 모 일간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천 수석이 '원칙있는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의 틀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켰다' '북한이 나를 강경파로 만들었다' '북에 돈을 주고 평화를 사는 것은 안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며 "천영우놈이 언론에 나서서 이명박 역도의 대결정책을 합리화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망동을 부렸다"고 주장함.
- 이와 함께 조평통은 이명박 정권이 새 집권 세력에 대결정책의 연장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명박 역도 패당의 극악한 동족대결정책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면 남조선 인민들에게 차례질(닥칠) 것은 더 큰 불행과 재난 뿐"이라고 위협함.

## 나. 경제사회문화

### ● 남북협력기금 집행률 4년 연속 한자릿수(1/6, 연합뉴스)

-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4년 연속 1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통일부는 6일 2012년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6.9%로 집계됐다고 밝혔으며, 총 사업비 1조 60억 300만원 가운데 693억 7천 600만원이 집행됐음.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급격히 떨어짐.

### ■ 기타 (대남)

- 「조평통」 대변인 성명(1.3), 대통령·통일부장관 등의 對北발언(NLL 사수, 나쁜 선택 등) 관련 '동족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자들은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하며 '南 당국의 금후 태도를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1.3.중통·중방)
- ① 민족의 재앙을 막으려면 그 화근을 뿌리채 들어내야 함. ② 동족대결에 매달리면 전쟁을 피할 수 없음. ③ 온 겨레가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반통일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 나서야 함.
-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18호, 천영우 수석이 문화일보 인터뷰(12.27)시 한 對北발언들 관련 '안팎에서 얻어맞고 만신창이 된 이○○패당의 체면을 조금이라도 세우고 차별화해 보려는 새집권 세력에게 못을 박기 위한 술책'이라고 비난(1.6.중통·중방)

1.07-1.13

1월

2주차

1. 대내 동향

가. 정치

나. 군사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3. 대남 동향

##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北, 김정은 생일 앞두고 전국 어린이에 사탕 선물(1/7,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자신의 생일(1.8)을 앞두고 전국의 초등학교·유치원·탁아소 어린이에게 사탕과자 선물을 보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7일 전함.
  - 방송은 “전국의 소학교(초등학교) 학생들과 유치원, 탁아소 어린이들이 사랑의 선물을 한가득 받아 안았다”며 “(김 제1위원장은) 친 아버지의 다심(세심)한 정으로 좋은 것이 생기면 후대들에게 선참으로(먼저) 안겨 주시고,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 듯 이번에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당과류(사탕과자)들을 보냈다”고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사탕과자를 선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생일 2~3일 전에 전국의 소학교와 유치원, 탁아소는 선물 전달식을 열고 투명한 비닐봉지 안에 알사탕, 과자, 캐러멜, 콩사탕, 껌 등이 든 무게가 1kg 정도의 선물을 어린이들에게 나눠줌.
  
- **北매체 “民心은 천하지대본” 선전…민생 행보 주목(1/11, 노동신문; 우리 민족강당)**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1면에 게재한 ‘위대한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최후승리의 활로를 열어나가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심을 잘 알고 광범한 균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일심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며 “민심은 일심단결의 천하지대본이며 인민의 이익과 목소리는 우리 당 정책의 절대적 기준”이라고 주장함.
  - 또 김일성방송대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우리민족강당’은 이날 논문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은 뜨거운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고 계시는 절세의 위인’에서 “예로부터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전해오고 있다”며 “민심을 잃으면 천하를 잃고 민심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으며, 그러면서 “정치 본연의 사명은 사회의 주인, 역사의 주체인 인민

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해 인민대중의 이익을 철저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부연함.

● 北, 김정일 생일 ‘광명성절’ 분위기 조성(1/1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1번째 생일(2월 16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북한이 서서히 생일맞이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 위원장의 탄생일인 ‘광명성절’을 경축하는 재중 조선인총연합회 준비위원회가 지난 9일 결성됐다고 준비위원장으로 최은복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의장이 선출됐다고 보도함.
- 이어 “광명성절에 즈음해 준비위는 보고대회, 영화감상회, 도서 및 사진 전시회, 예술공연 등 다채로운 경축행사를 조직·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 기타 (대내 정치)

- 최룡해(총정치국장), 국가과학원 잔디연구소 개건정형 현지요해(1.9,중통)
- 강석주(내각부총리), 1.10 中 정부 경제무역대표단(단장 : 리금조 상무부 부부장)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 및 김정은 黨 제1비서 선물 접수(1.10,중통)

나. 군사

● 北, 남북간 로켓기술 ‘격차’ 노골적 부각(1/11, 노동신문)

-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한 달(12일)을 앞두고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 문제를 거론하며 남북 간 로켓기술 ‘격차’를 노골적으로 부각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1일 보도함.
- 신문은 ‘높은 경지에 이른 우주 기술-남녘 인민들의 반향’이라는 글에서 “‘광명성 3호’ 2호기가 극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것과 관련해 남조선 각계는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남조선 각계는 ‘북의 로켓기술 수준이 남쪽보다 훨씬 앞섰다는 것이 은하 3호 발사로 입증됐다’고 평가하면서 우리의 우주기술 위력을 찬양하고 있다”고 주장함.

- 특히 “남조선의 인터넷 가입자들은 ‘다른 나라에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도 기술이전을 못 받고 발사도 못 하는 나로호를 북에 의뢰했다면 옛날에 발사했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함.

## 다. 사회문화

### ● 北 “효율성 뛰어난 신형 축전지 개발”(1/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전기자동차의 전력공급장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의 ‘연(鉛·납)축전지’를 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함.
- 통신은 이날 “최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밀폐형 연축전지(동력용)가 개발됐다”며 “고체 전해질에 의한 밀폐형 연축전지는 류산(황산) 전해액을 이용하는 연축전지에 비해 30%의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제작원가는 10% 낮고 수명은 2배나 길다”고 전함.
- 또한, 통신은 “지난 10여 년 동안 승용차 시험운행에 적용해본 결과 운행 시간은 8시간, 평균 시속은 70km/h, 최대속도는 180km/h를 확보했다”며 “여러 차례 시험에서 서로 다른 운전기재의 내연기관을 능가하는 특출한 기술적 성능을 과시한 신비한 축전지”라고 강조함.

### ● 北 김책공대 교수 “인터넷 확산은 시간문제”(1/8, AP통신)

- 북한의 IT(정보기술) 전문가인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수가 북한 내 인터넷 사용 확산은 시간문제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AP통신이 8일 보도함.
- 통신은 북한을 방문 중인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일행이 8일 북한 최고 명문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평양발 기사로 전하면서 김책공대 류순렬 전자도서관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함께 보도했는데, 이에 따르면 지난달 이뤄진 이번 인터뷰에서 류 관장은 대학 내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먼저 허가를 받은 뒤 온라인에서 검색하려는 자료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힘.

- **北, 11년 연속 기독교 박해 세계 1위(1/9, 오픈도어스; 연합뉴스)**
  - 북한이 전세계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로 평가됐다고 '오픈도어스'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연합뉴스가 9일 보도함.
  - 미국의 국제기독교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는 8일(현지시간) 공개한 '2013 월드워치 리스트'에서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평가된 50개 국가 가운데 북한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힘.
  
- **네덜란드 대학, 北서 이달 2차 감자 연구지원 시작(1/10, 자유아시아방송(RFA))**
  - 농업과학 연구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바게닝겐 대학이 북한에서 새로운 감자 연구 지원 사업을 이달 시작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전함.
  - 이 대학의 대북사업 책임자인 마텐 용스마 박사는 지난해까지 1차 지원을 했고 앞으로 3년간 진행될 이번 연구 지원은 2차 '감자질병 통합 관리'(Integrated Potato Disease Management, IPM) 지원 사업이라고 밝힘.
  - 용스마 박사는 "유럽연합(EU)과 네덜란드 정부의 공동 지원금으로 북한의 풍토에 맞고 병충해에 강한 감자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며 "지난해 EU 집행위원회 산하 유럽원조협력청(EuropeAid)과 네덜란드 경제농업 혁신부가 45만 유로(약 6억 2천 500만원)를 지원해 북한 농업과학원과의 공동 연구를 3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함.
  
- **北 리성근 전 여자축구 대표팀 감독 사망(1/10, 노동신문)**
  - 북한 여자축구를 세계적 수준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는 리성근 전 감독이 지난해 사망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함.
  - 신문은 이날 '여자축구 발전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 참된 애국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리 전 감독의 활동을 상세히 소개하고 "리성근 동무는 나라의 여자축구 발전과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기 위한 헌신의 길에서 높은 실적을 쌓은 관록 있는 책임감독과 축구 전문가"라고 평가함.

● 아일랜드 NGO, 160만弗 규모 北환경개선 사업(1/12,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 아일랜드 비정부기구(NGO)인 ‘컨선 월드와이드’가 올해 북한 평안북도와 황해북도에서 식량과 식수, 환경 등 5개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함.
- 이 단체의 미레일 디쿠마겐지 북한·남수단 지원 담당관은 최근 RFA 측에 “약 160만 달러(16억 8천만원)의 예산으로 식량안보와 건강, 식수지원 등 5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힘.
- 5개 지원사업은 ▲금천군 식수와 환경개선 ▲신계군 영양지원 ▲신계군·화창군 공동체 기반 영양지원 ▲금천군 종합영양지원 ▲환경보존을 위한 농업기술지원 사업 등임.

● 北 평양과기대 나선캠퍼스 생긴다(1/13, 연합뉴스)

- 남북 간 첫 합작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중국과 인접한 경제특구인 나선시에 분교를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연합뉴스가 전함.
- 평양과기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나선에 분교를 건립하기로 북한과 계약을 끝낸 뒤 오는 3월 수업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일단 나선시에 있는 기존 북한의 교육시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앞으로 건물을 새로 지어 분교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힘.

● 北, 올해 첫 ‘체육의 날’ 맞아 다양한 체육 활동(1/13, 조선중앙TV)

- 북한은 13일 올해 첫 ‘체육의 날’을 맞아 평양시를 비롯한 전역에서 다채로운 집단체육 활동을 벌였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함.
- 중앙TV는 이날 “당의 체육강국 건설구상을 빛나게 꽃피우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올해 첫 체육의 날을 맞이한 수도 평양은 다양한 체육 활동으로 흥성이었다”고 전함.

## 2 대외 관계

- **두만강교 도보 건너 北관광 서양인도 가능(1/8, 자유아시아방송(RFA))**
  - 서양인 관광객이 중국 지린성 투먼(圖門)시와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구를 잇는 다리를 걸어서 건너 북한을 방문하는 관광 상품이 처음으로 개발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전함.
  - 이 관광상품을 개발한 ‘영파이어니어 투어스’의 트로이 콜린스 대표는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서양인 최초로 지난해 11월께 해당 관광코스를 답사하고 북한 당국으로부터 관광상품 개발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으며, 투먼~남양 다리를 건너 북한 함경북도 지역을 돌아보는 관광상품은 과거에는 중국인에게만 허용됐지만 서양인에게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北 건설 앙코르와트 박물관 4월 개장(1/8,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사원 옆에 짓는 박물관이 올 4월 개장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전함.
  - 앙코르와트 사원이 있는 ‘앙코르 고고학 공원’ 입구에 들어선 이 박물관은 북한의 만수대창작사 해외사업부가 시공을 맡았고 1천만 달러의 공사비 전액을 북한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박물관에는 북한 화가들이 직접 제작한 길이 120m, 높이 13m의 초대형 파노라마 모자이크 그림과 부처의 대형 초상화 등이 전시되고 앙코르와트의 조성 과정을 담은 3D 영화도 상영될 예정임.
  
- **中, 北에 전문가 70명 파견 경제특구 ‘컨설팅’(1/9, 연합뉴스)**
  - 중국 상무부가 북한에 전문 인력 70여 명을 보내 나진, 황금평·위화도 공동 경제특구에 대한 ‘합작 컨설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함.
  - 중국내 유력한 대북 소식통은 9일 “지린(吉林)성 정부 산하 상무청 직원 70여 명이 수개월째 북한에 파견돼 중·북 합작과 관련한 실무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으며, 또한 “크게는 경제특구의 운영 형태에서부



터 특구 관련 각종 법 제도, 외국 투자 유치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30여 년 개혁개방의 중국 비법을 전수 중”이라고 덧붙였다.

● **北, 세계 38곳 무역대표처 운영(1/9,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해외에 38개의 무역대표처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보도함.
- 방송은 코트라가 최근 낸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현재 중국 6개 도시, 러시아 4개 도시, 독일, 프랑스, 브라질, 인도 등에 해외경제무역대표처를 설립했다”고 전했으며, 이어 “북한이 최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독일의 경제·법률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새로 설치된 무역대표처가 투자유치뿐 아니라 경제정책 자문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평가함.

● **北中, 경제기술협조 협정 조인(1/9,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중국이 9일 평양에서 북중 경제·무역·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갖고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함.
- 그러나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양측은 또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구 관리위원회 사무청사 건설과 관련한 문건도 조인했다고 통신은 전함.
- 이날 조인식에는 북한 측에서는 구본태 무역성 부상, 리철석 합영투자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중국 측에서는 리진짜오(李金早) 상무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경제무역대표단과 류홍차이(劉洪才) 주북 중국대사 등이 참가함.

● **슈미트 일행, 평양 컴퓨터센터·인민대학습당 방문(종합)(1/9, 연합뉴스)**

- 북한을 방문 중인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과 빌 리처드슨 전 멕시코 주지사 일행이 9일 평양 중심가에 있는 인민대학습당과 조선컴퓨터센터 등을 찾았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함.
- 슈미트 회장은 조선컴퓨터센터에서 북한 관계자들에게 북한이 자체 개발한 운영체제인 ‘붉은별’과 이를 탑재한 북한산 태블릿PC에 대해 예리한 질문을 던졌으며, 3-D안경을 잠시 착용하기도 함.

- 이 컴퓨터센터는 북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컴퓨터 산업의 중심지로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이제는 과학과 기술을 위한 시대. 컴퓨터의 시대”라고 말한 글귀가 적혀 있었으며, 앞서 이들은 평양에서 가장 큰 도서관인 인민대학습당을 방문함.

● **중국 단둥, 올해 대북 경제협력 강화(1/10, 단둥신문망)**

- 중국의 대북 교역 최대 거점인 랴오닝성 단둥(丹東)시가 올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현지 인터넷 매체인 단둥신문망이 10일 보도함.
- 매체는 단둥시 인민대표대회 대표 송치(宋琦)를 인용해 북한이 과거와 비교할 때 최근 2년 사이에 경제 발전 측면에서 매우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단둥이 이런 좋은 기회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전함.

● **유엔, 北로켓 추가제재 논의 지지부진(1/10, 연합뉴스)**

- 지난달 12일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추가제재 논의가 미국과 중국 간 물밑 협상에도 아직 가시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의 한 소식통이 10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소식통은 이날 일본과 다른 당사국이 대북 조치 협의의 진척을 바라고 있지만 중국이 북한 제재 확대를 꺼리고 있다면서 “우리는 계속 미국을 비롯한 당사국들에 압박을 가하는 것밖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고 전함.

● **유엔, 北 탄소배출권 시설물 승인 완료(1/1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유엔에 신청한 탄소배출권 시설물 승인이 지난해 말 완료됐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전함.
- 북한의 탄소배출권 신청을 대신한 체코의 전력회사 토픽 에너고 사의 한 고위 인사는 RFA에 “북한이 신청한 2개 시설물의 타당성 확인 절차가 작년 말에 끝났다”며 이로써 북한이 신청한 시설물 6개의 승인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밝힘.

- **무산철광 인근 中 난핑-허룽 철도 개통(1/11, 연변일보)**
  - 아시아 최대 노천 철광인 북한 무산철광과 인접한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난핑(南坪)진과 허룽(和龍)시를 잇는 총연장 42.5km의 철도가 정식 개통했다고 현지 매체인 연변일보가 11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이 철도는 2009년 8월 착공한지 3년 4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완공돼 철도 당국의 검수를 받았으며 허룽에서 중국 동북의 내륙 철도망과 연결됨. 난핑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함경북도 무산과 마주해 있는 도시로, 추정 매장량이 45억t에 달하는 무산철광의 철광석이 중국으로 반입되는 주요 통로임.
  
- **北, 평안북도 동림군 中 관광객에 개방(1/11, 중국신문사)**
  - 중국인 사이에 북한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오는 7월부터 평안북도 동림군을 중국인 관광객에게 추가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11일 보도함.
  - 통신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와 마주한 랴오닝성 단둥(丹東)시의 관광국이 기존에 운영 중인 단둥-신의주 1일 관광에 이어 단둥-동림 1박 2일 관광코스를 개척했다고 전함.
  
- **조선신보 “아베, 납북자 문제로 재일동포 압박”(1/11, 조선신보)**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1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재일동포 사회를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함.
  - 조선신보는 이날 ‘앞길이 캄캄한 아베 정권의 출범’이라는 제목의 시론에서 아베 정부가 북한문제와 관련해 “특히 납치문제를 걸어 압력을 가할 것을 예고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벌써 조선학교에 대한 ‘고등학교 무상화’를 저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총련조직과 재일동포에 대한 노골적 탄압과 차별정책이 추진될 것이 예측된다”고 우려함.
  
- **일본, 북한 도항·송금 제한 강화 검토(1/13, 아사히신문)**
  - 일본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독자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함.

- 또 북한에 돈을 보낼 때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기준 금액을 현재 300만엔 (3천 600만원)에서 더 끌어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대북 수출입은 이미 전면 금지한 상태여서 더 강화할 수 없는 상태임.

기타 (대외 일반)

- 北 외무성 비망록(1.14), 정전협정 체결 60년을 맞으며 '유엔사령부 해체와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며 '미국이 옳은 선택을 할 때까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1.14.중통)

### 3 대남 동향

● 北노동신문 “공동선언 이행이 대결상태 해소 방도”(1/9, 노동신문)

- 북한은 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 6·15선언과 10·4선언 등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것이 남북간 대결 상태를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거듭 주장함.
- 신문은 이날 ‘대결상태 해소는 조국통일을 위한 선결 과제’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5년간 북남선언들이 성실히 이행됐더라면 북남관계는 그 이전 시기에 비해 훨씬 더 발전했을 것이며 따라서 지금과 같은 복잡한 문제들이 결코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며, 특히 “오늘의 정세에서 북남사이 대결의 장막을 걷어내는 기본 방도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조선신보 “박근혜 대북공약 빈말인지 지켜볼 것”(1/9, 조선신보)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9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며 “박근혜의 선거공약이 빈말인가 어떤가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이날 ‘좀 두고보자’라는 글에서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7·4공동성명에 조인한 사실과 2002년 박 당선인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만났던 사실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주장했으며, “대선 기간에 박근혜는 대북대결정책을 취한 이명박 도당과는 거리를 두며 화해와 평화

정책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북남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의 지도자와도 만나겠다고까지 말했다”고 밝힘.

■ 기타 (대남)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의 對北발언(5.24조치의 영향력 등) 관련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다음기 정권이 그대로 받아들게 하려는 기도'라고 지속 비난하며 '무자비한 징벌' 위협(1.10.중통/산송장들의 단말마적 지랄발광)

1.14-1.20

1월

3주차

1. 대내 동향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3. 대남 동향

##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北, 5년만에 ‘전당 당세포 비서대회’ 개최 예고(1/1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8일 전국의 노동당 말단 간부들이 참가하는 ‘전당 당세포 비서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함.
  - 통신은 이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크나큰 감격 속에 받아 안고 전당, 전국, 전민이 필승의 신심과 낙관에 넘쳐 새해의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전당 당세포 비서대회가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다”고 밝히면서, ‘전당 당세포 비서대회’를 “강성국가 건설 위업을 실현하는데 획기적 전환을 가져오는 역사적 이정표”, “당 역사에 특기할 의의깊은 사변”등으로 규정하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대회 개최 날짜는 밝히지 않음.
  - 통신은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해나가는 오늘 당세포 사업에서 획기적 전환을 일으켜 우리 당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서 면모를 일신하는 것은 시대와 혁명의 요구”라고 강조함.
  
- 北 ‘신년사 관철’ 내각회의 개최(1/19, 조선중앙통신; 민주조선)
  - 북한 내각은 최영림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 과업을 관철하려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을 인용해 19일 보도함.
  - 이날 회의는 전승훈 부총리의 보고에 이어 토론이 이어졌고 내각 책임일꾼과 관리국장들, 도·시·군의 인민위원장, 도 농촌경리위원장, 도 지구계획위원장, 도 식료일용공업관리국장들, 주요 공장 및 기업소 지배인들이 회의를 방청함.
  -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는 석탄공업과 금속공업을 중심으로 경제 분야에서 비약을 일으켜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는 것이 올해 내각의 중심 과업이라고 지적함.

● 北김정은, 대성산종합병원 건설현장 시찰(1/19,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완공을 앞둔 평양 대성산종합병원의 건설 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9일 전함.
- 방송은 김 제1위원장이 군대가 건설 중인 대성산종합병원을 찾아 중앙홀, 수술실, 입원실, 아동병원, 구강병원, 기능회복센터 등을 돌아보고 건설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고 전함. 또한 김 제1위원장은 대성산종합병원에서 약을 주는 장소를 방문해 “약 내주는 곳’이라고 쓴 명찰에는 우리 글과 함께 국제 공용표기도 함께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고 입원실에서는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꾸렸다고 칭찬했다고 밝힘.
- 특히 그는 의학부문의 과학화, 정보화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에 국가적인 의학정보자료기지를 구축해놓고 병원이나 진료소와 같은 말단 보건기관에서도 그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게 종합적인 망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시함.
- 이날 시찰에는 최영림 내각 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박도춘 노동당 비서, 김경옥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박태성·황병서·마원춘 당 부부장, 전창복 상장 등이 수행함.

■ 김정은동향

- 1/19, 김정은 黨 제1비서, 618건설돌격대를 적극 지원한 근로자 김태룡(청소년과외교양지도국 연구사) 외 9명에게 감사(1.19,중방)
- 1/19, 김정은 黨 제1비서, 완공단계에 이른 대성산종합병원 시찰(1.19,중방·중통)
  - 최영림, 최룡해, 박도춘, 김경옥, 리재일, 박태성, 황병서, 마원춘, 허환철, 전창복 등 동행
- 1/19, 김정은 신년사 과업 관철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최영림(내각총리)·전승훈(내각부총리/보고) 등 참가하 진행(1.19,중통·민주조선)
  - 지난해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 총화와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책 토의 및 해당 결정 채택
- 1/20, 김정은 黨 제1비서, 시리아·나이지리아·콩고·우간다·에티오피아 대통령 등 김정일 사망 1돌 전문에 대해 답전(1.20,중통·중방)
  - 黨 중앙총에서도 중국 공산당 중앙총에 謝意 표명 답전(1.20,중통)



## 나. 경제

### ● 北, 전국 협동농장 분조장 대상 과학강습(1/14, 조선신보)

- 북한이 전국의 협동농장 분조장들을 대상으로 과학강습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4일 보도함.
- 신문은 이날 북한이 올해 농업 분야에서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학화와 집약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실무적 조치의 하나로 전국의 각 도, 시, 군들에서 협동농장 분조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강습이 연초 진행되게 된다”고 전함.
- 이어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도입하고 단위 면적에 농기계, 연유, 비료 등 생산수단과 노력을 집중투하하며 선진과학기술로 단위생산물당 노력과 자금을 적게 들이면서도 높은 생산량을 얻도록 하기 위한 문제에 농업 부문의 일군들은 물론 현장 근로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설명함.

### ● 北 김정은 시대 첫 자연개조사업은 축산단지 조성(1/20, 조선신보)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 등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해 온 북한에서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돼 눈길을 끈다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20일 전함.
- 신보는 “세포등판을 나라의 종합적인 축산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사업이 전 국가적인 관심 속에 힘있게 추진되고 있다”며 “인민군 군인들과 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세포등판은 날을 따라 몰라보게 변모되고 있다”고 밝힘.

## 다. 사회·문화

### ● 유엔 “김정은 체제 1년, 北 인권 처참”(1/14, 연합뉴스)

-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지 1년이 넘었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처참한(deplorable)’ 수준이라고 나비 필레이 유엔 최고인권대표가 14일(현지시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함.

- 필레이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주민 20만명이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고, 수감자들에게는 고문과 성폭행, 강제노동 등 반(反) 인권적인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함. 필레이 대표는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서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조금이나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개선 징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밝힘.

● **北 해주 고아원 어린이 92% 만성영양실조(1/16, 자유아시아방송(RFA))**

- 덴마크의 구호단체 ‘미션 이스트’가 지난해 11월 황해남도 해주의 고아원에서 영양조사를 한 결과 어린이 92%는 만성적인 영양실조 증상을 보였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전함.  
- 또 이 고아원의 5만 이하 어린이 10%가 급성 영양실조에 걸렸고 36%는 급성 영양실조의 위험에 처한 것으로 파악됨.

● **北, 2012년 10대 최우수선수 선정(1/1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런던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을 2012년 10대 최우수선수로 선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함.  
- 통신은 17일 “조선에서 주체101(2012)년 10대 최우수선수, 감독이 선정됐다”며 지난해 열린 런던올림픽과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등의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인물이 최우수선수에 선정됐다고 설명함.

● **북한, 방문 외국인 휴대전화 소지 허용(1/20, 연합뉴스)**

-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됐다고 북한-이집트 합작 휴대전화 업체 ‘고려링크’의 한 기술자가 20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름을 밝히지 않은 고려링크의 이집트인 기술자는 “지난 7일부터 세관에 휴대전화 단말기 식별번호를 등록하기만 하면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방식의 3세대(3G) 휴대전화 사용자는 50유로(한화 7만원 상당) 짜리 고려링크 유심카드를 사면 이 휴대전화로 국제전화를 할 수 있다”고 덧붙임.

## 2 대외 관계

### ● 北 외무성, 유엔군사령부 해체 촉구(1/1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14일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뀌야 한다며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촉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함.
- 외무성은 이날 발표한 ‘비망록’을 통해 올해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됐지만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지속하고 있다며 유엔군사령부는 지체없이 해체돼야 한다고 밝힘.
- 또한, 외무성은 “미국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데 대한 우리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입장과 노력을 한사코 외면하면서 정전상태를 지속시키고 있는 배후에는 유엔군사령부라는 냉전의 유령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엔군사령부를 즉시 해체하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유지하는가 마는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원하는가 아니면 냉전의 부활을 꾀하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으로 될 것”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이 옳은 선택을 할 때까지 그 어떤 형태의 전쟁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 지린성, 올해 두만강 지역 합작 개발 가속화(1/14, 길림신문)

- 북한, 러시아와 접경한 중국 지린(吉林)성이 올해 두만강 유역 경제 벨트인 ‘창지투(長吉圖·창춘-지린-투먼) 개방 선도구’를 앞세워 지역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길림신문이 14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왕루린(王儒林) 지린성 서기는 최근 열린 성(省)경제사업 회의에서 “창지투 전략이 국가급 전략으로 승격된 것은 개혁·개방 이래 지린성이 맞이한 최대의 기회”라며 “창지투 전략을 중요한 기치로 세우고 관련 사업들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강조함.

### ● 美 AP통신 부사장 방북(1/14, 조선중앙통신)

- 존 다니제브스키 미국 AP통신 부사장이 14일 방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함.

- 통신은 이날 “미국 AP통신사 부총사장 존 다니제브스키 일행이 1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전했다지만 방북 일정과 목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AP통신이 지난해 1월 서방 언론사 최초로 평양에 종합지국을 개설한 점으로 미뤄 이번 다니제브스키 부사장 일행의 방북은 지국 개설 1주년과 관련된 것으로 보임.

● **EU “북한 식량사정 호전…올해 대북 지원계획 없어”(1/15,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럽연합(EU)은 최근 북한의 식량 사정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올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밝힘.
- 방송에 따르면 유럽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ECHO)의 데이비드 샤록 대변인은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긴급 지원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말함.

● **美민간단체, 5월 평양서 결핵연수원 착공(1/15,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 민간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이 오는 5월 북한에서 결핵전문가 연수원의 건립 공사를 시작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5일 전함.
- 결핵전문가 연수원은 평양의 국립결핵예방병원에 약 56평(185㎡) 규모로 건설되고 공사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계획이며, 북한에서 결핵전문가 교육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새 연수원이 세워지면 이론 수업과 실습이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 **北, 5년 만에 호주대사관 재설치 추진(1/16,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5년 만에 호주에 대사관을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함.
- 호주 외무부 대변인은 북한 대사관의 재설치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대사관을 통해 핵, 미사일, 인권에 관한 북한의 메시지가 호주에 전달될 수 있다고 말함.

- 北 “프랑스 회사와 협력해 향료 생산”(1/1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6일 평양의 향료제조공장이 프랑스 업체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힘.
  - 통신은 이날 “지난해 조업한 평양향료무역회사에서 생산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회사는 프랑스의 한 향료회사와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프랑스 회사의 이름이나 협력 방식을 밝히지 않았지만 평양향료무역회사가 향료 산업이 발전한 프랑스로부터 기술적 도움을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았을 것으로 분석됨.
  
- 유엔아동기금 “올해 대북사업에 5천만 달러 필요”(1/17,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산하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이 올해 대북사업에 4천8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전함.
  - 이는 지난해 유엔아동기금의 예산 3천 800만 달러보다 1천만 달러 많은 액수이며, 유엔아동기금은 올해 대북 보건사업으로 말라리아 퇴치를 비롯한 예방 접종과 의료진 연수 및 교육, 필수 의약품 지원 등을 펴고 북한 강원도, 함경남북도, 양강도 등지의 고아원에서 어린이 1만여 명이 ‘중증 급성영양실조’에서 벗어나도록 영양 지원을 할 계획임.
  
- 北 “아베 日정부, 치욕의 과거와 결별해야”(1/1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7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일본은 수치스러운 과거와 결별할 때가 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적함.
  - 통신은 이날 ‘치욕의 과거와 결별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아베 총리가 지난달 31일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비롯한 과거 범죄를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 등을 재검토할 의향을 표시했다며 “일본의 신임 수상 아베가 집권 시작부터 과거 범죄사를 전면부정하는 망언을 하여 국제사회 여론의 비난거리가 되고 있다”고 주장함.
  - 논평은 이어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지난 3일 아베 총리의 발언을 ‘수치를 느껴야 할 행동’이라고 비난했다고 소개하며 “이(아베 총리의 발

언)는 최악에 찬 과거사를 부정해버리는 것으로 임기 첫걸음을 떼는 현 일본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응당한 저주와 규탄”이라고 지적함.

● **작년 중국 찾은 北주민 18만명…‘사업목적’ 42% ↑ (1/18, 자유아시아방송(RFA); 국가여유국(國家旅游局))**

- 지난해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은 총 18만600명으로 2011년보다 1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중국 국가여유국(國家旅游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함.
- 국가여유국의 ‘2012년 1~12월 외국인 입국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 방문 북한인 중 취업목적 근로자가 7만9천600명(44%)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목적 방문자가 5만2천200명(31%)으로 두 번째로 많음. 취업목적 근로자는 전년보다 4천300명(6%) 증가했고 사업목적 방문자는 1만6천200명(42%) 늘어난 것임.

● **美 AP 부사장 “北, 외국언론 진출 더 허용할수도”(1/18, 연합뉴스)**

- 지난 14~17일 방북했던 존 다니제브스키 미국 AP통신 부사장은 18일 북한에 더 많은 외국 언론이 진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연합뉴스와의 단독인터뷰를 통해 밝힘.
- 서울을 방문한 다니제브스키 부사장은 이날 단독인터뷰에서 “(북한이) AP에 평양지국을 허가한 것은 그들에게는 결단이었고 그런 결단을 후회한다는 징후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북한이 아마도 앞으로 더욱 많은 외국 언론에 진출을 허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함. 그는 “북한은 그들의 관점과 정책을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한다”고 덧붙임.

● **스위스 대북사업가 “北, 무역·상업에 우선순위”(1/19, 자유아시아방송(RFA); 미니언빌)**

- 북한과 스위스 기업이 합작한 ‘평스제약합영회사’의 펠릭스 앵트 회장은 “북한 정부가 무역 및 상업에 우선순위로 여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인터넷 경제신문 ‘미니언빌’을 인용해 19일 전함.

- 애플 회장은 최근 '미니언빌'과 인터뷰에서 북한 내 사업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부의 변화 덕분에 북한 주민들도 더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밝힘.

● **北 축구대표 박남철, 태국 프로팀 이적(1/19, 조선신보)**

- 북한 남자축구 대표팀의 미드필더 박남철(28)이 태국 프로축구 무대에서 뛰게 됐다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9일 보도함.
- 신문은 "조선 축구 남자대표팀의 중간방어수(미드필더) 박남철 선수가 타이 1부리그의 SCG무앙통·유나이티드FC로 이적했다"고 전함.

● **北, 고종 94주기 맞아 日군국주의 부활 움직임 비난(1/20, 노동신문)**

- 북한은 고종 황제 94주기를 하루 앞둔 20일 일제가 고종을 독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신문을 통해 일본의 최근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을 비난함.
- 신문은 이날 개인필명의 글에서 "94년 전인 1919년 1월20일 일제가 조선봉건정부의 고종황제를 독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며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2009년 4월 미국 하와이 국제학술회의에서 제시한 일본 궁내성(宮內省) 관리 구라토미 유자부로(倉富勇三郎)의 일기를 거론함.
- 신문은 "일본은 지난날 일제가 저지른 흉악한 대죄악을 청산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부정하기 위해 더욱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다"며 "수상(총리)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기미가요'를 불러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리는가 하면 2차 대전 패전으로 빼앗긴 교전권과 참전권을 되살리기 위해 '정상 국가부활론'을 떠들어대고 있다"고 비난함.

● **안보리 대북 결의안, 새로운 제재 포함 가능성(1/20,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번주에 채택할 결의안에는 제재 대상의 부분적 확대와 함께 새로운 제재 내용도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유엔의 외교 소식통은 1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과 중국 간의 잠정 합의 안에는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의 기관 단체와 개인의 수를 소폭 늘리는 것과 별도로 새로운 종류의 제재도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힘.

기타 (대외 일반)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美 무기수출들 관련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군비경쟁을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군비경쟁의 장본인'이라고 비난(1.15,중통)
- 【중통 논평】 日 아베 新任 수상의 '과거범죄사 전면부정 망언'(12.12.31)은 “도덕적 저열성극치, 군국주의 재침야망”이라며 ‘과거청산 용단’ 촉구(1.17,중통/치욕의 과거와 결별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
  - 오늘 과거사에 대한 태도는 일본이 정상국가, 평화국가로 되어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느냐 아니면 군국주의 침략국가로 영원히 망하느냐를 가르는 시금석임.
  - 일본의 ‘독도 영유권설’은 “기만과 모략, 간교한 술책으로 일관된 완전한 억지주장, 국제법을 난폭하게 유리하는 불법무도한 범죄행위”라고 비난 지속(1.17,평방/독도는 국제법적으로 조선의 고유한 영토)

3 대남 동향

● 北매체, 대선 후 자제하던 새누리당 비난 재개(1/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4일 논평을 통해 “얼마 전 ‘새누리당’의 대변인이라는 자는 저들이 발의한 ‘북인권법’ 제정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야당에 악법채택을 강박해 나섰다”며 “반공화국 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키려고 최후발악하고 있다”고 비난함.
- 또 “새누리당 패들의 북인권법 조작책동은 존엄 높은 우리(북한)의 사회주의 제도를 해치고 ‘체제통일’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북인권법이라는 것은 반공화국 뼈라살포와 극우보수단체 지원 등 북남 사이의 체제대결을 제도적으로 고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또 하나의 대결악법”이라고 주장함.

● 평양과기대 총장 “박근혜 정부에 큰 기대”(1/15, 연합뉴스)

- 남북 간 첫 합작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의 김진경 총장은 15일 “(나는) 박근혜 정부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다. 아마 큰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함.
- 최근 방북했다가 14일 귀국한 김 총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3년도 통일IT포럼 신년교류회’ 강연에서 “정치적 통일보다는 문화적·정서적 통일을 먼저 이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힘.



- 김 총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거론하며 “지금 북은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다”, “사람이 사망했다면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며 차기 정부가 북한의 현재 상황을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 기타 (대남)

- 【중통 논평】 새누리당이 제정하려는 ‘북인권법’은 “북남사이의 체제대결을 제도적으로 고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또 하나의 대결악법”이라고 지속 비난 선동(1.14, 중통/동족대결의 악몽을 되살리려는 행위)
- 북방한계선(NLL)의 해상경계선 공식화 관련 ‘1953년 8월30일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그어 놓았다’며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불법 무법의 유령선’이라고 주장(1.15, 평방/북방한계선은 불법무법의 유령선)

1.21-1.27

1월

4주차

1. 대내 동향

가. 정치

나.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 北, ‘김정은 성형’ 의혹보도에 ‘발끈’(1/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3일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을 통해 최근 보도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성형 의혹에 대해 “쓰레기언론들의 너절한 매문(賣文)행위”라고 비난함.
- 논평은 “최근 일부 불순 적대세력과 매문가(어용언론인)들이 반공화국 모략선전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며 “그 앞장에는 여전히 모략에 이골이 난 남조선 매문가들이 서 있다. 남조선의 극우보수언론들은 우리 최고 수뇌부의 존엄과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별의별 악설을 다 고안해내고 있다”고 비난함.
- “우리는 이것(성형 논란)을 영도자와 군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의 현실에 대한 극도의 무지몽매로, 언론의 초보적인 체모마저 갖추지 못한 쓰레기 언론들의 너절한 매문행위로 단호히 일축한다”고 강조함. 이어 “백두산위인의 태양의 존안에 얼마나 위압되고 얼이 나갔으면 차마 상상할 수도 없는 수술 의혹설까지 꾸며냈겠는가”라며 “우리 최고 수뇌부에 대한 적들의 모략보도는 최고 존엄에 대한 가장 엄중한 도전으로서 특대형 범죄행위”라고 덧붙임.

#### ● 北, 제4차 당세포비서 대회 28일 개최(1/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이 노동당 세포비서 대회를 제도화해 오는 28일 제4차 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함.
- 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지난 23일 노동당 세포비서 대회를 제도화해 필요한 시기마다 소집키로 하고 “2013년 1월 28일에 소집하는 전당 당세포비서 대회를 노동당 제4차 세포비서 대회로 할 것”을 결정했다고 전함.
- 노동당 정치국은 ‘조선노동당 세포비서 대회를 제도화할 데 대하여’란 제목의 결정서를 채택하면서 1991년 5월에 열린 전국 당세포비서 강습회

를 ‘노동당 제1차 세포비서 대회’로, 1994년 3월 열린 전당 당세포비서 대회를 ‘노동당 제2차 세포비서 대회’로, 2007년 10월에 열린 전국 당세포 비서 대회를 ‘노동당 제3차 세포비서 대회’로 각각 정한다고 밝힘.

● 北 “김정은, 국가적 중대조치 결심”(1/2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을 비롯한 최근 정세와 관련해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단호한 결심을 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함.
- 통신은 이날 “최근 우리나라(북한)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와 관련한 국가 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가 진행됐다”며 김정은 제1위원장이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해당부문 일꾼들에게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했다”고 전함.

■ 김정은동향

- 1/23, 김정은 黨 제1비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을 지원한 근로자 등에게 ‘감사’ 전달(1.23, 중방)
- 1/27,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 소집 및 지도(1.27, 중통)
- 김정은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단호한 결심을 표명하고 해당 부문 일꾼들에게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했음.
- 최룡해(軍총정치국장)·현영철(軍총참모장)·김원홍(국가안전보위부장)·박도춘·김영일(黨비서)·홍승무(黨부부장)·김계관(외무성제1부상) 등 참석

■ 기타 (대내 정치)

- 영농전투에서 선봉대·돌격대가 되기 위한 함남 함주군 청년전위들의 결기모임, 1.21 전용남(청년동맹중앙위원장) 등 참가자 동봉협동농장에서 진행(1.21, 중통)
- 최영림(내각총리),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건설정형과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1강철직장 및 보산제철소 강철생산정형 요해(1.24, 중통·중방)
- 黨 비서들, 1.27 제4차 세포비서대회 참가자들 숙소 방문(1.27, 중통)
- 김기남, 최태복,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곽범기, 문경덕 등
- 군중을 당과 혈연적으로 더욱 굳게 이어주며 당의 노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 나가는데서 혁명의 기수, 투쟁의 기수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갈 것을 당부

## 나. 사회문화

### ● 北, 원산 인근 마식령에 스키장 개발 계획(1/22, 연합뉴스)

- 북한이 강원도 원산시 인근 마식령에 스키 리조트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22일 밝힘.
- 박 사장은 “작년 12월 중순 평양을 방문했을 때 원동연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에게서 북한이 마식령에 스키장을 개발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함.
- 원동연 부부장은 당시 ‘스키 전문가인 김정은 원수님이 스키장 개발을 직접 발기했으며 스키장을 건설할 장소로 마식령을 정한 것도 김정은 원수님’이라고 전했다고 박 사장이 밝힘.

### ● 北, 올해 주요 국내·국제경기 소개(1/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올해 국내에서 개최할 경기대회와 북한 스포츠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인 국제경기를 소개함.
- 통신은 “뜻깊은 올해에 많은 국내·국제경기들이 진행된다”라며 “광명성절(김정일 생일·2월 16일)과 태양절(김일성 생일·4월 15일)을 맞으며 진행되는 백두산상 체육경기대회,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에 이어 보천보 해불상 체육경기대회, 제16차 정일봉상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 전승컵 체육경기대회, 오산덕상 체육경기대회를 비롯한 경기대회와 선수권대회가 개막된다”고 전함.
- 또 “조선 체육인들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벌어질 국제경기들에 출전한다”며 “제6차 동아시아경기대회, 19살 미만 여자축구, 마라톤, 청년·청소년 역기(역도)선수권대회 등에 참가한다”고 밝힘.

### ● 北 공항서 외국인용 휴대전화 유심카드 판매 시작”(1/22, 교도통신)

- 북한이 외국인의 휴대전화 반입을 허용함에 따라 평양 순안공항에 외국인용 휴대전화 유심카드 판매 창구가 등장했다고 교도통신이 22일 평양 발로 보도함.
- 북한은 이전에는 외국인의 휴대전화 반입을 막았지만, 이달 들어 이를 허용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이집트 합작 휴대전화 회사인 고려링크는

최근 순안공항에 ‘이동통신’이라고 적힌 게시판이 걸린 창구를 개설하고 유심카드를 팔기 시작함.

● 北 “자체 기술 공업용컴퓨터 ‘노을’ 개발”(1/23, 노동신문)

- 북한이 최근 고성능 공업용 컴퓨터를 자체 기술로 제작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3일 밝힘.
- 신문은 이날 “최근 노을기술합작회사에서 성능 높은 우리식의 공업용 컴퓨터 ‘노을’을 개발했다”라며 “이번에 새로 개발된 ‘노을’은 일체식 컴퓨터로 종전의 공업용 컴퓨터들보다 우월하다”고 전함.
- ‘일체식 컴퓨터’는 디스플레이, 본체 등 모든 것이 하나의 프레임 안에 들어 있는 공업용 컴퓨터로, 사람이 기계를 조종하기 위한 장치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HMI(Human Machine Interface) 공업용 컴퓨터’라고도 부른다고 신문은 설명함.

##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北, 작년 중국 곡물·비료 수입 전년比 30% 줄여(1/22,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과 비료가 전년보다 각각 약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함.
- 22일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최근 올린 ‘북한의 11월 대중 곡물 및 비료 수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전체 곡물량은 25만 7천 931t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35만 2천 282t과 비교해 26.8% 감소함.

● 北, 평양 주재 외교관 규제·관리 강화(1/22, 태양보(太陽報))

- 북한이 주재 외교관들에 대해 해외 휴대전화와 카메라 반입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22일 홍콩 태양보(太陽報)가 보도함.

- 매체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몇 년간 평양 주재 외교공관과 공관 직원들에 대해 카메라와 비디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부착된 통신장비와 해외에서 쓰던 휴대전화 등의 반입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함.

● **北, 박상권 평화차 사장에 평양시 명예시민증(1/22, 연합뉴스)**

- 북한이 오랫동안 대북사업을 진행해온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에 작년 말 평양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함.
- 미국 시민권자인 박상권 사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작년 12월1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차희림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평양시 명예시민증을 받았다”며 “그날 명예시민증 수여 의식에 양형 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도 참석해 축하해줬다”라고 밝힘.
- 북한이 김정은 체제 들어 외국 국적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박 사장이 공개한 평양시 명예시민증에는 ‘002’라는 일련번호와 함께 “조국과 민족의 융성번영을 위하여 특출한 공헌을 한 박상권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명예시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새겨져 있음.

● **중국, 북한 나선특구에 첫 단독투자 은행 설립(1/25, 훈춘신문망(琿春新聞網))**

- 중국이 북한 나선 경제특구에서 중국 인민폐를 공식 결제 화폐로 사용하기 위한 은행을 설립했다고 현지 인터넷 매체인 훈춘신문망(琿春新聞網)이 25일 보도함.
- 매체에 따르면 중국이 북한에 세운 첫 단독투자 은행인 중화상업(中華商業)은행이 북한 중앙정부의 비준을 받아 지난 18일 나선 특구에 정식으로 설립됨.

■ **기타 (대외 일반)**

- 北 외무성, 1.23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배경 ‘성명’ 발표(1.23,중통·중방)
- 평화적 위성발사 권리를 말살하려는 유엔안보리의 부당한 처사 배경, ②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 평화적위성발사 권리를 계속 행사할 것, ③ 조선반도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 ④핵억제력을 포함한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 선언
- 【北 국방위 성명(1.24)】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관련 ‘전면배격,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의 비핵화실현에 총력 집중,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면 대결전에 진입할 것’을 주장(1.24,중통·중방·평방/나라의 자주권은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펼쳐나서게 될 것이다)
- 北 외무성 성명(1.23), 1.25 ‘유엔 안보리 공식문건 S/2013/50호’로 배포(1.26,중통·중방)

## 나. 6자회담(북핵)

### ● 北, 장거리로켓 핵심부품 자체제작..외국산 일부수입(1/21,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해 12월 발사한 장거리 로켓(미사일)의 핵심 부품 대부분을 자체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함.
- 이에 따라 군당국은 북한이 외부세계의 도움 없이 사거리 1만km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과 부품 조달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함.
- 북한은 자체 제작 부품 외에 중국과 유럽 등 5개 국가에서 전자기기 센서와 전선 등 부수 장치에 필요한 10개 상용부품을 수입하기도 한 것으로 분석됐으나, 이들 부품 중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저촉된 부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北 ICBM 엔진설계 구조 드러나(1/21, 연합뉴스)

- 북한이 개발한 장거리 미사일(로켓)의 엔진설계 구조가 실물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함.
- 북한이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의 장거리 미사일 엔진구조가 이번에 고스란히 외부세계에 노출됨. 국방부가 21일 공개한 잔해 조사결과 이 로켓은 엔진으로 주엔진 4개, 보조엔진 4개 등 8개를 사용했으며, 추진력은 주엔진 108t(4개×27t), 보조엔진 12t(4개×3t) 등 120t 규모로 추산됨.
- 북한이 1990년대 초반 개발한 노동미사일의 엔진과 같은 주엔진의 도관(導管)은 무게를 줄이려고 가늘게 제작됐고 모세혈관 식으로 배열함. 이 도관으로 압축공기와 산화제, 연료가 주입되도록 했으며, 주엔진에 들어 있는 터보펌프와 산화제 유량조절기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됨.
- 특히 주엔진 사이에 장착된 4개의 보조엔진은 로켓의 방향을 바로 잡는 역할을 함. 각 3t의 추진력을 발휘하는 4개의 엔진은 상하 36도로 움직이도록 설계됐으며 내부에는 자동조종 장치(자이로시스템)가 들어 있음.

### ● 조총련 기관지 “北, 작년 美에 핵문제 관련 최후통첩”(1/21, 조선신보)

- 북한이 지난해 미국 NSC(국가안보회의)와 CIA(중앙정보국) 관계자를 통해 핵 문제와 관련한 최후통첩을 미국 정부에 보냈다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1일 전함.

- 신문은 이날 '정전 60년을 평화실현의 원년으로/ 조선의 경제부흥전략과 전쟁종결' 제목의 기사에서 "김정은 시대의 조선은 지나간 조(북)미 회담 역사를 총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핵 문제와 관련한 최후통첩을 미국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힘. 또한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버리지 않을 경우, 조선의 핵보유 장기화는 불가피하고 비핵화 논의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는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에게도 이미 전달됐을 것"이라며 "창조와 변혁을 오늘의 시대어로 정한 조선은 안보문제에서도 현상 타개를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함.

● 유엔 대북제재 강화..北 비핵화포기·핵실험 시사(1/23,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42일 만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함.
- 이에 대해 북한은 23일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할 것임을 선언하고 핵실험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 다음달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음.
- 유엔 안보리는 22일 오후(한국시간 23일 새벽) 채택한 결의 2087호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와 관련활동 전면 중단, 로켓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 등을 북한에 요구함. 또한, 이번 로켓 발사를 주도한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 기관 6곳과 백창호 위성통제센터 소장 등 개인 4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함.
- 안보리 결의에는 ▲북한 금융기관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촉구 ▲공해상의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제재 회피를 위한 대량 현금 이용 수법의 환기 ▲전면적(catch-all) 성격의 대북 수출 통제 강화 등의 조치도 포함됨.

● 北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메우고 케이블 빼낸 상태(1/23,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반발로 제3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북한은 현재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를 완료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함.

- 대북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핵실험을 할 기술적 준비를 끝냈다”면서 “김정은이 정치적 결심만 하면 수일 내에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힘. 특히 이 소식통은 “북한이 핵실험을 위해 파던 갱도(坑道)를 다른 데서 옮겨온 흙과 콘크리트로 메웠으며, 갱도에서 케이블을 빼낸 것도 확인됐다”고 설명함.

● **조선신보 “조선반도 평화보장 대화는 열려 있어”(1/23, 조선신보)**

- 북한이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에 맞서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며 반발한 것과 달리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미국에 대화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됨.
- 신문은 이날 ‘<비핵화종말>, 약속반복이 초래한 사태’라는 글에서 “과거에 수없이 되풀이되어온 제재와 자위적 대응의 연쇄반응을 차단할 책임은 미국측에 있다”면서 “조선은 ‘비핵화논의’는 없다고 하였지만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외무성 성명)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주장함.

● **北 국방위 “미국 겨냥한 높은 수준 핵실험 진행할 것”(종합)(1/24,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은 24일 국방위원회 명의로 낸 성명에서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가지 위성과 장거리 로켓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실험도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밝힘.
-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북한 매체들은 이날 정오 국방위원회가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불순세력의 대조선 적대시 책동을 짓부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 대결전에 진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천명했다고 일제히 전함.

● **北, 안보리 결의 연일 비난…“방방곡곡서 격노”(1/25, 노동신문)**

- 북한은 25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연일 안보리 결의를 비난함.

- 신문은 이날 1면 상단에 전날 발표한 국방위원회 성명을 싣고 지면의 3분의 2 정도를 “방방곡곡에서 격노의 함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안보리 결의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채움.
- 대외문화연락위원회의 김진범 부위원장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3호’ 2호기를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킨 것은 합법적 권리에 따른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에서 공화국의 신성한 자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하는 ‘결의’라는 것을 조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치밀어오르는 격분을 누를 길이 없다”고 토로함.
-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리경철 실장은 “국제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의 그 어느 조항에도 ‘탄도미사일 기술 이외의 방법으로 위성을 쏘아 올려야 한다’는 문구는 없다”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라는 타당성 없는 논거를 들고 유엔 안보리 ‘제제 결의’를 채택했다”고 주장함.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최성룡 부위원장은 “만약 원수들이 반공화국 고립압살 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우리는 500만 자루의 총대가 되고 천만 개의 폭탄이 돼 단호히 짓밟개버릴 것”이라고 말함.

● 北 “핵실험은 민심의 요구…다른 선택 없어”(1/26, 노동신문)

- 북한이 “핵실험(실험)은 민심의 요구이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며 핵 실험 강행의지를 노동신문을 통해 26일 노골적으로 천명함.
- 신문은 이날 ‘다른 선택은 없다’라는 제목의 ‘정론’을 통해 “핵실험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한다는 것이 인민의 요구”라며 이같이 밝힘. 또한, “유엔 안보이사회는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유를 더는 주지 않았다”며 “우리는 끝장을 볼 때까지 나가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강조함.

###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北노동신문 “‘범죄 온상’ 주한미군 철수해야”(1/21,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남조선 강점 미군이야말로 남조선 사회를 병들게 하고 인민들을 타락시키는 범죄의 온상”이라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함.
  - 신문은 이날 ‘범죄 무리를 내쫓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개인논평에서 “최근 남조선 강점 미군 병사가 마약을 몰래 반입하다가 발각됐다. 밀수통로는 미군의 군사우편이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힘.
  
- **탈북자 4명 또 재입북…평양서 기자회견(1/24, 조선중앙방송)**
  -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탈북자 부부와 그들의 딸, 또 다른 탈북 여성 등 4명이 북한으로 귀환해 기자회견을 했다고 24일 보도함.
  - 방송은 “괴뢰패당의 회유책동으로 남조선으로 끌려갔다가 공화국으로 돌아온 김광호 부부와 고경희 여성과의 국내외 기자회견이 24일 인민문 화궁전에서 진행됐다”며 “지금 괴뢰패당의 비열한 모략책동으로 남조선에 끌려갔던 우리 주민들이 남조선 사회와 결별하고 공화국의 품으로 계속 돌아오고 있다”고 전함.
  - 기자회견에서 김광호는 “2009년 8월 아내와 함께 남조선으로 나갔다가 지난해 말에 공화국으로 돌아왔다”라며 자신의 아내와 10개월 된 딸을 소개했고 고경희는 “2011년 6월 남조선에 끌려갔다가 지난해 말에 공화국으로 돌아왔다”고 밝힘.
  
- **北 “南 유엔제재 동참시 물리적 대응조치”(1/2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해 남한에 대해 “유엔 제재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경우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성명을 통해 “괴뢰 역적패당은 유엔의 반공화국 제재를 실현시켜보려고 악을 쓰며 동분

서주했다”며 이같이 주장함. 이어 “‘제재’는 곧 전쟁이며 우리에게 대한 선포고다”라며 “우리는 이미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대답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다”라고 거듭 위협함.

- 또 “남조선 괴뢰보수패당이 미국과 함께 반공화국 핵, 미사일 소동에 더욱 더 엄중히 매달리는 조건에서 앞으로 북남 사이에 더이상 비핵화 논의는 없을 것”이라며 “1992년 채택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완전 백지화, 완전 무효화를 선포한다”고 주장함.

## 나. 경제사회문화

### ● 남북 여자·유소년축구 北 거부로 ‘무산 연기’(1/24, 연합뉴스)

- 24일 중국 하이난다오(海南島)에서 치르기로 했던 남북 여자축구대회가 북측의 거부로 무산됐다고 연합뉴스가 24일 보도함.
- 강원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강원 도립대 여자축구팀과 북한 4·25여자축구팀 간 개막 경기를 하기로 했으나 북측이 참가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개막식은 개회선언으로 끝났고, 개막 경기는 도립대학과 중국팀 간 경기로 마침.

### ■ 기타 (대남)

- 【중통 논평】 최근 남한과 중국(1.19, ‘선전 위성TV’ 등)의 일부 언론들의 ‘김정은 성형수술(김일성 닮기) 의혹’ 보도들에 대해 ‘反北 모략선전, 쓰레기 언론들의 너절한 매도행위’라고 맹비난 및 언론 위협(1.23,중통)
- 北 「조평통」 성명(1.25),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관련 ‘南 정부 위협 대응조치’ 발표(1.25,중통·중방/우리의 정의의 위업에 감히 맞서는 자들은 무서운 보복과 철추를 면치 못할 것이다)
  - ① 남북간 비핵화 논의 중단(1992년 채택된 ‘조선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전면무효화 선포)
  - ② 反北적대정책에 계속 매달리는 한 그 누구와도 절대로 상종하지 않을 것
  - ③ 역적패당이 유엔 제재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경우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임.

1.28-1.31

1월

5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北 ‘협의회’ 참석 홍승무는 당 기계공업부 부부장(1/2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맞서 ‘중대조치 결심’을 표명한 회의 참석자 중 잘 알려지지 않은 홍승무 당 부부장은 군수 산업을 담당하는 당 기계공업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28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노동당 부부장이라고 소개한 홍승무는 북한 노동당의 기계공업부 부부장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 北김정은, 당세포대회 개회사…“대회는 김정일 유훈”(1/29,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8일 열린 노동당 제4차 세포비서 대회 개막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노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를 소집했다”며 “김정일 동지께서 앞으로 당세포비서대회를 1만 명 규모로 크게 조직해 당세포를 강화하는 데서 세포비서들이 한몫하도록 할 데 대한 강령적 가르치심을 주셨다”고 밝힘.
  - 또, 김 제1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는 당세포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 강화해 당 사업 전반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 것을 결심했다”며 당세포의 역할 강화를 주문함.
  
- 北김기남 당비서 “당원·근로자 전투동원태세 갖춰야”(1/29, 노동신문)
  - 북한의 김기남 노동당 선전 담당 비서가 28일 평양에서 개막한 제4차 노동당 세포비서 대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비난하며 당원과 근로자들의 전투동원태세를 강조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9일 전함.
  - 김 비서는 이 대회 보고에서 “경제강국 건설도,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우주정복 투쟁도, 나라의 국방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억제력 강화도 미제

를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수기 위한 투쟁으로 지향되게 해야 하겠다”며 “당세포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군사를 성실히 배워 일단 유사시에는 전민항쟁에 떨쳐나설 수 있는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며 원군미풍을 더 높이 발휘하게 해야 하겠다”고 말함.

● 北김정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해야”(1/29,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9일 제4차 노동당 세포비서 대회에서 당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이날 폐회사에서 “조선노동당 제4차 세포비서 대회는 주체혁명 위업 수행의 새로운 역사적 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의 전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강성국가 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해 나가는 데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한 대회로 우리 당 역사에 뚜렷이 아로새겨질 것”이라고 말함.
- 이어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당 건설 사상과 업적을 확고한 지침으로, 만능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며 수령님 식, 장군님 식으로 모든 것을 작전하고 설계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함.
- 또 “대회 참가자들과 전당의 세포 비서들은 이번 당세포 비서 대회의 정신을 심장깊이 새기고 당세포 사업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강성국가 건설의 거창한 실천에서 대회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함.

● 北김정은 “당내 관료주의자 뿌리 뽑아야”(1/3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 이틀째 회의에서 당내의 세도가와 관료주의자의 척결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29일 연설에서 “(당내의) 세도군(세도가), 관료주의자들이야말로 우리 당이 단호히 처야 할 주되는 투쟁대상”이라며 “당중앙위원회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화원에 돌아난 독초와 같은 세도와 관료주의를 별초만 할 것이 아니라 뿌리째 뽑아버리기로 단단히 결심했다”고 강조함.



- 김 제1위원장은 이어 “지금 적지 않은 당세포들에서는 당의 방침과 지시를 전달이나 하고 그것을 관철하자고 호소나 하는 식으로 사업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군중을 당정책 관철에로 조직 동원하는 데서 청년들과의 사업에 특별히 힘을 넣어야 한다”고 지시함. 또한, 그는 “당세포를 강화하는 것이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기본고리로 되기 때문에 당중앙은 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가 있는 다음 당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첫 대회로 세포비서 대회를 소집했다”며 “이번 대회를 당대회와 당대표자회에 못지않게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29일 대회 폐막사에서도 “우리는 김일성·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당 건설 사상과 업적을 확고한 지침으로, 만능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며 수령님 식, 장군님 식으로 모든 것을 작전하고 설계해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나가기야 한다”고 말함.

#### ■ 김정은동향

- 1/29, 김정은 黨 제1비서, 1.28 ‘제4차 세포비서대회’ 참석 및 개회사(1.29,중통·중방)
- 1/30,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제4차 세포비서대회’ 연설·폐회사 등 2일 회의 진행(각급 단위 세포비서들 토론 및 ‘맹세문’ 채택 등) 및 폐막(1.30,중통·중방)

#### ■ 기타 (대내 정치)

- 희천발전소 2단계 공사인 ‘청천강 계단식발전소’ 건설 착공식, 1.30 평북 향산군에서 진행(1.30,중통)
- 최영림(내각총리, 착공사), 김기남, 곽범기, 로두철 등 참가

## 나. 경제

### ● 北김정은 ‘통치 2년’ 쌀값·환율 불안정 여전(1/31, 데일리NK)

-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지 만 1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각종 경제지표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31일 데일리NK가 보도함.
- 특히 쌀값과 환율은 1년 전과 비교해 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 장마당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달 2~9일 기준으로 평양과 신의주, 혜산의 쌀값은 2주 전과 비교해 1kg당 각각 300원, 200원, 100원 오른 6천 700원, 7천원, 6천 600원을 기록함.

## 다. 사회·문화

### ● 北평양방송 내달 웹사이트 개설(1/29,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이 2월1일 웹사이트를 개설한다고 북한의 대내용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이 29일 전함.
- 방송은 이날 “2013년 2월1일 평양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민족대단결’을 개설한다”며 “새로 개설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민족대단결은 7천만 우리 민족이 우리민족끼리의 이념 아래 통일조국 건설에 떨쳐나서게 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함.

### ● 北, 희천발전소 2단계 공사 착공(1/3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30일 강성국가 건설의 대표적 시설로 강조해온 희천발전소의 2단계 공사인 ‘청천강 계단식발전소’ 건설을 시작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힘.
- 통신은 이날 평안북도 향산군에서 최영림 내각 총리, 김기남·곽범기 당비서, 로두철 부총리와 건설에 동원된 일꾼, 향산군 근로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착공식이 열렸고 최 총리가 착공사를 했다고 보도함.

##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 북한 금성학원 대표단, 중국 첫 방문(1/28, 중국신문사)

- 북한 최고 문화예술 인재양성기관인 금성학원의 대표단이 1966년 개교 이래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고 중국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28일 보도함.
- 매체에 따르면 오정훈 금성학원 원장과 학생들로 구성된 대표단은 지난 26일 북한과 접경한 랴오닝성 단둥(丹東)시를 방문했으며, 이들은 ‘압록강을 노래하며 황금평에 즐겁게 모이자’라는 주제로 이틀간 진행된 북·중 청년교류활동에 참가해 단둥 현지의 중국 학생들과 합동 공연을 펼침.

- **北, 작년 12월 中서 곡물 종자 53t 수입(1/30,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해 12월 이례적으로 중국에서 곡물 종자를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함.
  -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북한의 2012년 대중(對中) 곡물 및 비료 수입 동향'에서 "북한의 지난해 12월 곡물 수입에서 특이한 점은 벼와 옥수수 종자를 각각 36t, 17t 구입했다는 점"이라며 "북한이 곡물 종자를 수입하는 일은 흔치 않다"고 밝힘.
  
- **지난해 北中교역액 또 사상 최대치...60억달러 육박(1/30,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규모가 지난해 60억 달러에 육박,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함.
  - 전년 대비 증가 폭은 5%대에 머물러 근년 들어 계속된 큰 폭의 상승세는 일단 주춤하는 양상을 보임. 30일 중국 세관 당국이 집계한 북중 교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 1~12월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34억 4천 570만 달러, 수입액은 24억 8천 730만 달러로 총 교역규모는 59억 3천 200만 달러로 나타남.
  
- **중국 "북한 나선경제무역구법 연내 시행 추진"(1/30, 중국신문사)**
  - 중국이 북한 나선 경제특구에 진출한 중국 기업과 인원을 보호하기 위한 북한의 관련 법률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30일 보도함.
  - 지린(吉林)성 경제기술합작국 왕즈허우(王志厚) 국장은 이날 창춘(長春)에서 열린 지린성 제12차 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나선경제무역구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의 초안 작성과 제정을 가속화해 올해 안에 북한이 이를 공포·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北, 中서 생맥주 공장 투자자 모집(1/3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평양에 생맥주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중국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보도함.

- 방송은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가 최근 한 산하기관을 통해 게시한 ‘대북 생맥주 공장 합작 투자자 모집’ 공고문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전함.
- 공고문은 우선 일일 생산량 1천L 정도의 소규모 공장으로 시작해 점차 생산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며, 투자금은 주로 맥주생산에 필요한 설비 설치에 쓰이고 전기와 물, 노동력, 원료와 생산품 수송은 북한이 책임지는 상호합작 형태의 사업이라고 설명함.

## 나. 6자회담(북핵)

### ● 北 “미국은 참혹한 대가 치르게 될 것”(1/2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또다시 비난하며 미국이 참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힘.
- 통신은 이날 ‘미국은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에게는 자주권 수호를 위한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게 됐다”며 “미국은 조선 사람을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려던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이어 “반미투쟁의 새로운 단계인 이 전면 대결전에서 우리가 계속 발사할 위성들과 장거리 로켓들,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시험(핵실험)은 철두철미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수 미제를 겨냥할 것”이라며 미국을 겨냥한 핵실험 강행 의지를 거듭 밝힘.

### ● 北 풍계리 핵실험장 인력·장비활동 증가(1/30, 연합뉴스)

-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예고한 가운데 함경북도 핵실험장에서 최근 인력을 비롯한 차량 등 장비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함.
- 군과 정보당국은 이런 활동을 핵실험이 당장 임박한 징후로 보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준비상태를 유지하는 정황으로 평가함.

기타 (6자회담(북핵))

- 중앙통신사 논평(1.28), ‘北-美 전면대결전에서 우리(北)가 계속 발사할 위성과 장거리 로켓들, 높은 수준의 핵실험은 철두철미 미제를 겨냥할 것’이라고 위협(1.28,중통/미국은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 【중통 논평】 미국의 駐韓美軍 핵무기 배치 발표(58.1.29) 관련 ‘미국은 한반도 핵문제 장본인’으로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조선반도 비핵화도 불가능 하다”고 ‘억제력강화, 전면대결 전 지향’ 강조(1.26,중통)
- 北 국방위 성명(1.24), 1.29 UN안보리 공식문건 S/2013/57호로 배포(1.31,중방)
- ‘UN 對北제재 결의’는 ‘미국의 對北 적대시정책의 연장, 최절정’이라며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조선반도 비핵화도 불가능하다”고 지속 강조(2.1,중통·노동신문/세계의 비핵화를 떠난 조선반도 비핵화는 없다)

3 대남 동향

● 조선신보 “박근혜정권, 6·15정신으로 돌아설지 주목”(1/28, 조선신보)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8일 남한의 차기 박근혜 정권이 2000년 6월 첫 남북 정상회담의 화해·협력 정신을 가리키는 ‘6·15 정신’으로 전환할지 주목한다고 밝힘.
- 신문은 이날 ‘우리민족끼리가 유일한 출로’라는 제목의 ‘시론’에서 미국, 남한 등이 올해 대북정책 전환의 최대 기로에 놓이게 됐다며 “박근혜 정권이 6·15정신으로 돌아서서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나오는지 온 겨레가 주목하고 있다”고 주장함.

● 北 “南, 동족대결 포기 않으면 상대하지 않겠다”(1/2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 이명박 정부에 대해 “우리(북한)의 경고를 명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다시 위협함.
- 통신은 이날 ‘동족대결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와 마주앉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도발자들에게 차례질 것이란 무자비한 보복의 철추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함.
- 이어 “제재’는 곧 전쟁이며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우리는 이미 대결분자들의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

통일대전으로 대답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다”고 밝힘.

● **北, 한미연합훈련 비난…“엄중한 전쟁행위”1/3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30일 올해 초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을 “엄중한 전쟁행위”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비난함.
- 통신은 이날 ‘전쟁 미치광이들에게 차례질 것은 시체와 죽음뿐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 17일부터 진행된 한미 포병들의 흑한기 훈련과 2월 예정된 한미 해병대의 동계 연합훈련을 거론하면서 “조선반도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 새 전쟁의 도화선에 기어이 불을 달리는 침략적 기도의 집중적 발로”라고 주장함.
- 논평은 북한의 우주개발 권리를 부정하는 미국과 추종세력의 적대행위로 한반도에서 준엄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며 “미국이 강행하는 군사연습들은 극도로 침예화된 조미대결을 전쟁으로 이어가기 위한 미 행정부의 모험적인 기도로부터 출발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대한 노골적인 군사적 위협이며 엄중한 전쟁행위”라고 비난함.

■ 기타 (대남)

- 【중통 논평】 우리 정부의 ‘UN 對北제재 결의 참여 및 광명성-3호 발사 국제사회 공조대응’ 지속 비난 및 ‘南이 동족대결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北)와 마주앉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주장 (1.29,중통)
- 【중통 논평】 통일부 차관의 對北발언(멀지않은 장래에 한반도에 통일의 기회가 생길 것, 1.23) 관련 ‘최고준엄을 혈투어보려는 대결약담으로서 정치무지한의 낯두리, 정치만화’라고 실명거론 비난(1.30,중통/정치무지한의 히스테리적 나발)
- 【중통 논평】 韓美 포병들의 ‘흑한기훈련’과 韓美해병대 ‘동계연합훈련’(2월 예정) 관련 ‘韓-美軍 사이의 전투지휘 및 작전지휘체계를 완비하고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계획적, 도발적 불량난소동’이라 비난하며 ‘자위적 핵억제력으로 자주권 保衛’ 주장(1.30,중통/전쟁미치광이들에게 차례질 것은 시체와 죽음뿐이다)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2.01-2.03

2월

1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정부 “北 대풍그룹 해체…우동측 건강이상설”(2/1, 연합뉴스)**
  - 북한의 외자 유치 기구인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이 해체됐다고 정부가 1일 확인한 것을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함.
  - 통일부는 이날 발간한 ‘북한 권력기구도’에서 당초 당 외곽기구로 분류했던 대풍그룹을 삭제함. 대풍그룹은 2010년 1월 북한 국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개발은행의 투자유치 창구로 본격 활동을 시작, 금강산 해외 관광객 유치 등에 관여해왔지만 실적 부진으로 해체된 것으로 보임.
  
- **北, 당세포비서 강습…김정은에 대한 충성 강조(2/2,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노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강습을 갖고 김정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일 전함.
  - 방송은 “노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강습이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됐다”며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영남, 최영립, 최룡해와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 당 비서들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일꾼과 대회 참가자들이 강습에 참가했다”고 보도함.
  
- **北김정은, 당세포비서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2/2,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이 2일 전함.
  - 방송은 “(촬영장에 나온) 김정은 원수는 대회 참가자들과 전당의 세포비서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냈다”라며 “높은 열의와 적극적인 참가 밑에 자기 사업을 원만히 수행한 대회 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전함.
  
- **北, 홍승무에 김정일훈장…로켓 발사 기여자 표창(종합)(2/2,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지난달 26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맞서 ‘국가적 중대조치’를 결심한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에 참석했던 홍승무 노동당 부부장에게 김정일훈장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통신이 밝힘.

● 北 노동신문에 김정은·당세포비서 기념사진 ‘도배’(2/3,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3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4차 노동당 세포 비서대회 참가자들과 찍은 사진들로 총 4개 면을 도배함.
- 노동신문은 이날 김 제1위원장이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은 소식을 전하며 총 6개 면 중 2~5면에 김 제1위원장과 당세포 비서들의 기념사진을 10장이나 실음.
- 사진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맨 앞줄에 앉은 김 제1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등 지도부의 자리는 같지만 둘째 줄부터 서 있는 당세포 비서들만 바뀜.

■ 김정은동향

- 2/2, 김정은 黨 제1비서, 제4차 당세포비서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2.2.중통·중·평방)
  -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장성택, 김경희,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김영춘, 오극렬,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곽범기, 문경덕, 리병삼, 조연준 동행
  - 黨 제4차 세포비서대회 참가자들, 2.2 평양 일정 마치고 귀향(2.2.중통)
- 2/3, 北, 김정은 黨 제1비서 참가下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진행’(2.3.중통·중·평방)
  - 黨 중앙군사위원장들, 軍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로켓군, 대연합부대 지휘성원들 등 참가
  - 軍力 강화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한 문제와 조직문제 토의 및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고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켜나가는 데서 강령적 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결론을 함.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함흥시에 모시는 사업에 충정을 바친’ 혁명사적지건 설관리국 함경남도여단 등 ‘감사’ 전달(2.2.중방)
- 黨 세포비서 7명(김순옥, 유원지총국 중앙동물원 수류2작업반장 등)에게 ‘노력영웅 칭호와 금메달(마치와 낫) 및 국기훈장 제1급’ 수여식, 2.1 평양체육관에서 진행(2.1.중방·중통)
  - 김영남·김기남·최태복·박도춘·김양건·김영일·김평해·곽범기·문경덕·조연준·태종수 등 참

## 나. 사회문화

- 노동신문 “北선수 6명, 국제체조연맹 기술 등록”(2/1, 노동신문)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일 북한 체조 선수의 이름으로 국제 체조연맹(FIG)에 등록된 기술이 6개라며 기술을 상세히 설명함.
  - 신문이 이날 ‘조선 사람의 이름으로 명명된 체조 동작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FIG에 등록된 사례로 소개한 것은 북한 체조의 간판 리세광(4·25체육단)의 도마 기술임.
  
- 평양 20~50세 시민 60% 휴대전화 보유(2/3, 아주주간(亞洲週刊))
  - 평양에 사는 20~50세 시민 중 60%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북한 사회가 휴대전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아주주간(亞洲週刊) 최신호가 3일 밝힘.
  - 아주주간(亞洲週刊)은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 실태를 전하며 일부에서는 아이폰과 노키아 제품 등 스마트폰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소개함.

##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중국 옌벤-북한 칠보산 관광 사계절 확대(2/1, 길림신문)
  - 중국 옌벤(延邊)조선족자치주와 북한 함경북도 회령, 청진, 칠보산을 잇는 관광코스가 사계절 운영될 전망이라고 현지 매체인 길림신문이 1일 전함.
  - 옌벤아리랑여행사 엔지(延吉)분사와 북한 칠보산여행사는 최근 양측간 의무, 권리, 가격 등에 관한 실무계약을 맺으면서 북한 관광길에 오르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실정을 고려, 여름·가을철로 국한했던 이 관광코스 운영기간을 늘리기로 합의함.
  
- 北 관광 동남아인 급증(2/2, 자유아시아방송(RFA))
  - 평양을 방문하는 동남아시아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2일 보도함.

- 중국 베이징에 사무실을 둔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 (Young Pioneer Tours)’는 작년 성수기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평양 간 정기 항공편이 만원이었다며 이같이 밝힘.
- 여행사는 “말레이시아인들이 북한을 방문할 때 비자가 필요가 없었던 점도 관광객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을 찾는 관광객이 지난해에 많이 증가한 것이 동남아 관광객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함.

● 中, 의류업체 북한 임가공 첫 승인(2/2, 자유아시아방송(RFA))

- 중국 정부가 지린(吉林)성 의류업체의 북한 내 임가공사업을 승인했으며 이는 처음으로 대북 위탁가공을 승인한 사례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전함.
- 방송은 “중국 의류회사 4곳이 지난달부터 위탁가공 형태로 북한에서 의류를 시범생산 중이고 북한 노동자들이 만든 의류는 곧 중국에서 판매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힘.
- 중국의 ‘첫 대북 출경가공 결정’ 광고문에 따르면 지린성 훈춘 해관(세관)은 지난달 초 ‘훈춘운달복장유한공사’ 등 관내 기업 4곳에 옷감 등 원자재를 북한으로 가져가 북한 공장에서 의류를 생산하고 나서 완제품을 중국 국내로 가져와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함.

나. 6자회담(북핵)

● 北 “美, 日 위성발사는 감싸면서 우리만 문제삼아”(2/1,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일본이 최근 야간 정찰위성을 발사한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이 ‘이중기준’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함.
- 신문은 이날 ‘일본의 정찰위성 발사는 왜 문제시되지 않는가’라는 글에서 “미국은 국제문제에서 저들의 지배주의 야망 실현에 방해되는 나라에 대해서는 압력을 가하고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있다”며 “반면에 동맹국이나 저들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나라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도 묵인·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함.
- 또한,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사축해(부추겨) 우리나라(북한)의

평화적 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문제시’하면서도 저들의 손아래 동맹자인 일본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며 미국이 불공정하고 편견적인 이중기준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함.

● **北, 또 위장술…풍계리 갱도입구에 가림막 설치(2/1, 연합뉴스)**

- 북한이 첩보 위성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핵실험장 갱도 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1일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은 핵실험이 이뤄질 곳으로 지목되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한 갱도 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한 것이 식별됐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이날 밝힘. 한 소식통은 “갱도 입구에 지붕 모양의 가림막을 설치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핵실험 준비 상황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함.

● **조선신보, 美에 “전쟁방지 위한 평화회” 재촉구(2/1, 조선신보)**

-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조선신보가 1일 또다시 ‘한반도 평화 보장 대화’를 거론하며 북미대화를 촉구함.
- 신문은 이날 ‘최후결판의 국면-유엔결의 후의 전면대결전(1) <비핵화종말>, 반미항쟁의 새 단계’라는 글에서 “과거 선례가 보여주듯 ‘제재’의 가증은 조선의 결심을 되돌릴 수 없고 정세를 한층 더 격화시킬 뿐”이라며 “평화회담의 개최만이 전쟁방지의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최근 고조된 북미 간 갈등국면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60여년 전 일어난 전쟁의 마지막 국면일 수 있다. 대결의 역사가 집약된 중대한 분기점에서 조선은 미국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임.

● **北, 美 나로호 발사 두둔 비난…“이중기준”(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일 미국 정부가 한국의 나로호 발사를 두둔하면서 자신들의 위성 발사를 부정하는 것은 이중기준의 적용이라며 ‘초강경 대응’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재차 위협함.
- 대변인은 이날 문답에서 “우리의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를 부당하게 문제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채택을 주도한 미국이 남조선의 나로

호 발사는 비호두둔하는 추태를 부렸다”며 “우리의 위성발사 권리를 부정하면서 남조선 괴뢰들의 위성발사는 무작정 감싸주는 것이야말로 이중기준과 철퇴의 극치”라고 주장함.

- 이어 “우리 군대의 인민은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 대결전에 진입했다”며 “미국의 파렴치한 이중기준과 적대행위는 우리의 초강경 대응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함.

● 3차 북핵실험 임박 관측…北 “김정은, 중요 결론”(2/3,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3일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를 백두산 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하고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켜나가는 데서 강령적 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결론을 했다”며 “중대한 시기에 진행된 회의는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라고 밝힘.

■ 기타 (6자회담(북핵))

- ‘UN 對北제재 결의’는 ‘미국의 對北 적대시정책의 연장, 최절정’이라며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조선반도 비핵화도 불가능하다”고 지속 강조(2.1,중통·노동신문/세계의 비핵화를 떠난 조선반도 비핵화는 없다)

### 3 대남 동향

- 北, 판문점 JSA 외곽에 감시용 대형 첩탐 설치(2/3,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외곽에 남쪽을 감시할 수 있는 대형 첩탐 2개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됨.
  - 군 관계자는 3일 “북측이 작년 12월 우리 군의 동향을 정면과 측면에서 내려볼 수 있는 JSA 서쪽과 동쪽에 대형 첩탐을 1개씩 세웠다”며 “첩탐의 높이는 60m에 달하고 CCTV도 설치돼 주변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4-2.10

2월

2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北 최룡해, 강등 2개월만에 차수 계급 복귀(2/5, 조선중앙TV; 연합뉴스)
  - 김정은 시대 북한 군부의 최고 실세로 꼽히는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이 대장으로 강등된 지 약 2개월 만에 차수 계급에 복귀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고 조선중앙TV를 인용하여 연합뉴스가 보도함.
  -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8시 보도에서 김일성 주석의 '일당백' 구호 제시 50주년을 기념한 인민무력부 보고회 소식을 전하며, 차수 계급장을 단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의 모습을 방영함.
- 北, 김정일 생일 앞두고 '포상 잔치'(종합)(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8일 평안북도에 있는 낙원기계연합기업소와 자강도의 3월5일청년광산 등 4개 기관과 백계룡 강원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오수용 함경북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등 개인 12명에게 김정일훈장을 수여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지난 6일 발표됐다고 전함.
  - 중앙통신은 "노동당의 선군혁명 영도를 높이 받들고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주위)에 튼튼히 묶어 세워 정치사상 진지를 반석같이 다지며 당의 노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국방력 강화와 경제강국 건설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배경을 설명함.
  - 북한은 또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김상옥 김일성종합대학 전자재료연구소장과 북한 주민의 정치·문화 지식수준을 향상시킨 도서 '광명백과사전'에 김정일상을 수여함.

### 김정은동향

- 2/4, 김정은 黨 제1비서, 베트남 주석 및 이란·이집트 대통령 등 각국 黨 및 국가수반들과 유엔 사무총장에게 '새해 연하장' 발송(2.4,중통·중방)

기타 (대내 정치)

- 김일성의 일당백 구호 제시(63.2.6) 50돌 기념 인민무력부 보고회, 2.5 최룡해\*차수 계급장 군복 착용/총정치국장(보고)·현영철(총참모장)·김격식(인민무력부장)·현철해 등 참가 4.25문화회관에서 진행(2.5.중통·중방·중앙TV)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2959호(2.6), 국방력강화와 경제강국 건설에 기여한 단체·일꾼·군인·근로자들에게 '김정일훈장' 수여(2.8.중통·중방)
  - 단체 : 낙원기계연합기업소, 3월5일청년광산, 강계은하피복공장, 황북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 개인 : 백계룡, 오수용, 김창명, 로경준, 최대일, 박초영 등 12명
- 최룡해 총정치국장, 평양 문수물놀이장 건설장 현지요해(2.9.중통)

나. 군사

- 北 내부에선 '은하3호'를 미사일 '화성13호'로 전시(2/4, 아사히신문)
  - 북한이 지난해 12월에 발사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와 비슷한 기체를 군 무장장비관에서 탄도미사일 '화성 13호'로 전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아사히신문이 4일 익명의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4월 평양에서 개관한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에 '전략로켓관'이라는 돔형 전시실을 개설하고 이곳에 각종 미사일을 전시함. 중심부에는 백지에 '화성 13호'로 적은 기체의 실물을 전시해놓았고, 안내원은 이 기체의 지름이 2.4m이고 길이는 26m라고 설명했다고 전함.

다. 사회·문화

- 北, 약수·온천 개발 관련 '광천법' 제정(2/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최근 약수와 온천 등의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한 제도와 절차를 담은 '광천법'을 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함.
  - 통신은 이날 "최근 조선에서 광천법을 채택함에 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됐다"며 "광천법은 광천의 탐사와 개발, 이용,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의 건강을 적극 보호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소개함.

- 北 “김정일 지시로 2004년부터 줄기세포 연구”(2/7,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04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줄기세포 연구가 이뤄지기 시작했다고 7일 전함.
  - 신문은 이날 ‘줄기세포 기술개발에 깃든 사연’이라는 개인필명의 글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9년 전에 “세계적으로 줄기세포 기술과 계놈에 대한 연구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연구사업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함.
  
- 北 주민 하루 식량배급 400g…작년 4월 이후 최대(2/8,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당국의 지난달 식량 배급량이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 행사를 진행했던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전함.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 담당 대변인은 RFA에 북한 당국이 지난 1월 주민 한 명에게 하루 400g의 식량을 제공했다고 밝혔는데 북한 주민의 1일 식량 배급량이 400g을 회복하기는 작년 4월 이후 9개월 만임.
  
- 北 평양 쌀값 7개월 만에 5천원대 하락(2/9, 데일리NK)
  - 9일 대북매체 데일리NK가 집계해 공개한 ‘북한 장마당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으로 평양과 신의주, 혜산의 쌀값은 전달 초와 비교해 1kg당 각각 1천 100원, 1천 500원, 100원이 내린 5천 600원, 5천 500원, 6천 500원을 기록함.
  
- 北도 설 분위기…對김정은 충성 부각(2/10,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 조선중앙TV는 10일 오전 8시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더욱더 아름답고 희망찬 앞날을 약속하며 설명절의 아침이 밝아왔다”며 “지금 천만군민의 가슴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주위)에 굳게 뭉쳐 그이의 영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변영을 위하여 억세계 싸워나갈 한마음으로 불타오르고 있다”고 축원인사를 함.

- 대내용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도 이날 새벽 설명절에 온 나라에 차고 넘치는 것은 김 제1위원장에 대한 고마움과 충정의 일편단심이라며 김 제1위원장의 안녕을 축원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희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높이 모셔 우리의 민속전통은 더욱 활짝 꽃피날 것이고 내 조국의 존엄과 위용은 만방에 펼쳐질 것”이라고 주장함.

##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北 “美, 모든 경제분야에 제재…경제건설 노력 난관”(2/4, 노동신문)**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미국이 무역, 금융을 비롯한 모든 경제분야에서 전면적 제재를 해오고 있다고 비난함.
  - 신문은 이날 ‘우리에 대한 제재는 통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부당하고 악랄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무역, 금융, 투자, 부동산, 보험, 수송, 우편통신, 래왕(왕래)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제재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렸다”고 주장함.
  - 이어 “현재 미국이 군사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주요 공장설비, 첨단기술로부터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자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의 거래를 제한, 금지시키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우리에게 대한 자산동결, 금융거래 차단, 차관계약 금지, 공해상에서 선박 검색, 금지물자 압수, 모든 무기와 관련물자의 반입과 반출 통제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조선신보, 中 겨냥 “특정나라 자주권 침해 목인” 비난(2/4, 조선신보)**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4일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 이른바 ‘대국’이 미국의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지 못한 사례

가 없지 않았고 특정한 나라에 대한 자주권침해를 묵인하는 사태가 반복됐다고 비난함.

- 신문은 특히 이 '대국'에 대해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국가라고 표현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시사함. 또한, 이날 '최후결판의 국면-유엔결의 후의 전면대결전(2)-정전 60년, 동북아 역학구도의 대변동'이라는 글에서 유엔 안보리와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각각 "힘의 논리에 놀아나는 허수아비기구", "정의와 상식을 뒤집는 그릇된 국제질서의 산물"이라고 비난하며 이같이 주장함.

● 北中 '나선농업시범구' 상당한 성과(2/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선특구 내 농업시범구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홍콩 일간지 대공보(大公報)를 인용해 5일 보도함.
- 중국 지린(吉林)성 경제기술합작구 왕즈허우(王志厚) 국장은 지난 1일 대공보와 의 인터뷰에서 나선특구 내 농장에서 양측이 합작한 벼농사가 지난해 '대풍작'이었다며 약 87ha 넓이의 논에서 기존 수확량의 배가 넘는 쌀이 생산됐다고 밝힘.

● 작년 북한·중국 교역 60억弗 돌파...7% 증가(2/5, 연합뉴스)

- 중국에 대한 북한의 무역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북한과 중국간 교역 규모가 6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연합뉴스가 5일 전함.
- 중국 세관에 따르면 2012년도 북중간 교역 규모는 60억3천390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7% 증가함.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35억3천260만 달러로 11.6%나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25억130만 달러로 1% 늘어나는 데 그침.

● 中, 北 나진항 통해 농산물 운송 계획(2/6, 자유아시아방송(RFA))

- 중국이 북한 함경북도 나진항을 활용한 운송 품목을 다변화하고 화물 운송량도 늘릴 계획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전함.
- 방송은 중국 훈춘(琿春)시가 '올해 주요 교통망 운용 계획'에서 나진항 항로를 석탄뿐 아니라 다른 화물 운송에도 활용할 예정이고 지금까지

훈춘에서 생산된 석탄을 나진항으로 나르던 일방통행식 운송 방식을 쌍방향으로 바꿀 것으로 밝혔다고 설명함.

● **북한, 중국 금융제재 대비 '분주'(2/7, 연합뉴스)**

- 북한의 무역회사와 각 기관이 중국의 금융 제재 가능성에 대비해 각종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7일 전함.
- 대북 소식통은 7일 “북한 무역회사 등이 최근 중국에서 회사명을 바꿔 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입금된 자금을 빼내는 움직임이 있다”고 밝힘.

● **北 “美, 北로켓 빌미로 MD시스템 구축 합리화” 비난(2/8,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미국이 우리의 미사일 위협을 기정 사실화해 세계제패를 노린 미사일방어(MD)체계 구축을 합리화하려 한다”고 비난함.
- 신문은 이날 ‘미사일방어체계 수립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음흉한 술책’이란 제목의 개인 필명의 글에서 “미국의 MD 체계 수립책동은 전 지구적인 미사일 망을 형성해 절대적인 군사적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세계제패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
- 이어 “미국의 MD 체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잠재적 적수들을 동쪽과 서쪽에서 압축하는 방향에서 구축되고 있다”면서 “MD 체계를 구축해 유사시 사면 팔방에서 미사일 공격을 들이대자는 것이 미국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밝힘.

● **북한-중국 종합박람회 올해 확대 개최 합의(2/8, 연합뉴스)**

- 8일 단둥시 무역촉진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린쉐웨이 단둥시 무역촉진회 회장을 단장으로 한 중국 측 대표단은 북한 국제전람사의 초청으로 지난 달 27~28일 평양을 방문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중은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중·조(북한)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의 명칭을 유지하고 올해 행사는 오는 10월 11일 개막하기로 함.

● **중국 훈춘, 작년 북한 출입 인원 급증(2/8, 연변일보)**

- 8일 연변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나선 특구, 나진항으로 향하는 훈춘

- 취안허(圈河)통상구의 출입경 인원은 총 35만7천 명으로, 전년 대비 37.3% 증가함.
- 신문은 취안허통상구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북한 원정리~나진항 도로가 지난해 하반기에 정식 개통하면서 북한을 왕래한 인원이 급증했다고 전함.

● **北매체, 10여일 만에 중국소식 잇따라 전해(2/10,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월16일)에 즈음한 김정일화전시회가 지난 3일 중국 랴오닝성 다롄(大連)에서 열렸고 중국 공산당 다롄시위원회, 다롄시 인민대표대회, 다롄시 인민정부 및 공안국, 다롄영기화목유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보도함.
- 특히 왕세량 다롄영기화목유한공사 이사장은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중조(중북) 친선의 유대가 공고하게 발전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이 방송이 소개했는데, 열흘 만의 중국 관련 보도임.

■ **기타 (대외 일반)**

- 【중통 논평】 ‘미국과 추종세력의 이중기준과 적대행위(일본의 정찰위성 발사, 상임이사국들의 미사일 요격시험 묵인)는 우리(北)의 초강경 대응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 지속(2.5.중통/횡포한 이중기준은 천백배의 대응을 초래할 것이다)
- 【중통 논평】 美 B-2 스텔스 폭격기 광 배치, 동해상 韓美연합해상훈련 등 ‘적대세력의 가증되는 핵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해 핵실험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北)가 도달한 최종 결론’이라고 위협(2.5.중통/우리의 선택은 적대세력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 【중통 논평】 ‘UN안보리 對北제재 결의’는 ‘우리(北)의 자주권 수호와 운명적 문제’라며 “모든 억제력 강화도 미국을 겨냥한 전면대결전에 지향되고 북중되는 것은 응당하다”고 ‘對美 적개심’ 고취(2.7.중통)

나. 6자회담(북핵)

● **北, 핵실험시 제재하면 대응조치 되풀이할 것(2/4, 조선신보)**

- 북한은 4일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비난하면서 3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취할 제재에 대해서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조선신보를 통해 위협함.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최후결판의 국면-유엔결의 후의 전면대결전 (3)-제재의 한계, 문제해법은 평화담판'이라는 글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배격한 조선(북한)이 언명한 '물리적 대응조치'에 대해 또다시 '제재'가 가해지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라며 "(북한의) 대응조치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함.

● **北 '북핵선제타격론'에 반발...“상상초월한 대응” 위협(2/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5일 미국이 대북 핵 선제공격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하며 한국과 미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위협함.
- 통신은 이날 '우리의 선택은 적대세력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라는 논평에서 미국이 최근 B-2 폭격기를 괌에 배치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응한 요격 로켓을 시험했으며, 동해 상에서 핵잠수함 등을 동원해 한국군과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전쟁 책동이 엄중한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비난함.
- 통신은 이어 "적대세력의 가증되는 핵전쟁 도발 책동에 대처해 핵시험(실험)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도달한 최종결론이다. 이것은 민심의 요구이다"라며 "우리에게는 끝장을 볼 때까지 나가는 길밖에 다른 선택이란 없다"고 주장함.

● **北 “美, ‘중대조치’ 모르면서 핵실험으로 지레짐작”(2/9, 우리민족끼리; 통일신보)**

- 북한은 9일 미국이 자신들의 '국가적 중대조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3차 핵실험'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후회 막심한 손해만 초래할 것이라고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 주장함.
- '우리 민족끼리'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선전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8일자 '힘에는 더 큰 힘으로'란 기사에서 "최근 공화국(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조작한 제재결의를 배격하고 그에 따른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하겠다고 내외에 선포했다"며 "미국과 적대세력은 공화국이 제3차 핵



실험을 한다고 지레짐작하면서 그것이 현실화되는 경우 선제타격까지 해야 한다고 입방아를 찧고 있다”고 비난함.

- 신문은 이어 “공화국이 취하게 될 국가적 중대조치에 대해서는 꼬물만큼 도(조금도) 모르면서 설레발을 치는 미국과 적대세력의 추태는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라며 “이번에 취하게 되는 국가적 중대조치도 미국의 침략위협에 대응해 민족의 이익을 지키자는 것이지 그 누구를 위협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함.

● **북한, 경제·군사제재 대응준비 돼 있다(2/10, 봉황(鳳凰)위성TV; 노동신문)**

- 북한 공산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9일 핵실험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과 관련, “경제적이나 군사적 제재를 막론하고 모든 대응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중국 봉황(鳳凰)위성TV가 10일 전함.
- 노동신문은 “미국과 ‘추종세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를 꾸며내면서 한반도 정세를 다시 엄중한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함.

###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조선신보, 박근혜 당선인에 남북경협 활성화 촉구(2/4, 조선신보)**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촉구함.
  - 신문은 이날 '메아리' 코너에 게재한 '개성공업단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과 남이 화해하고 유무상통하여 통일과 번영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민족의 요구다"라며 "박근혜 정권은 이 길을 걷겠는가 외면하는가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개성공업단지와 금강산관광은 북남화해와 경제교류의 상징적인 사업이다"라며 "(5·24조치에도) 북남 공동으로 사업을 계속한 개성공업단지는 큰 이득을 보고 화해와 교류의 길이 막힌 금강산관광사업은 큰 손실을 보았다"고 강조함.
  
- **北, 동해 한미연합훈련 비난…“새 전쟁 도발 의도”(2/4,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4일 한국과 미국이 이날 동해 상에서 시작한 연합 해상훈련에 대해 "새 전쟁 도발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함.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개인필명의 글에서 "지금 조선반도에 전쟁 불구름이 시시각각으로 밀려오고 있다"며 "오늘과 같은 침예한 정세 속에서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이 벌려놓으려고 하는 연합 해상훈련과 그를 둘러싼 위협천만한 군사적 움직임이 바로 그러하다"고 주장함.
  
- **조선신보 “박근혜 정부 행동 따라 남북대화 가능하다”(2/6, 조선신보)**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라 남북대화가 열릴 수 있다고 6일 주장함.
  - 신문은 6일 자 '최후결판의 국면-유엔결의 후의 전면대결전 (4)-제재의 한계, 문제해법은 평화담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박근혜 정부가 오는 25일 출범한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가 초래한 제재 국면에서 새 정부가

취할 행동은 북남관계 정상화를 위한 ‘신뢰프로세스’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이어 “조선(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 채택으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최절정에 달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비핵화 회담의 종결을 선언했다”며 “그러나 남측에서 민족공동의 이익을 내세워 문제해결을 시도한다면 대화의 창구가 열리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내다봄.
- 신문은 또 “남측이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대화의 주제로 제기할 수 있는 명분과 조건도 있다”며 “2007년의 북남 수뇌상봉(정상회담)에서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수뇌들이 전쟁종결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할 데 대한 합의가 이룩되고 있다”고 덧붙임.

● 北 ‘核선제타격’ 발언에 “전쟁 맛봐야”발끈(2/8, 우리민족끼리)

- 북한은 우리 군당국이 북한의 핵사용 임박 징후 포착 시 ‘선제타격’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증오와 격분에 앞서 가소로움을 금할 수 없다”며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8일 밝힘.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논평에서 “아무리 동족에 대한 적대의식과 전쟁광증에 환장이 됐다 한들 이렇게까지 무지스러울 수 있겠는가”라며 “남조선 괴뢰들은 아직도 우리를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 동시에 저들의 몸값 역시 가늠할 줄 모른다”고 비난함.
- 또 “괴뢰 호전광들이 너무도 쉽게 ‘전쟁감수’나 ‘선제타격’을 올렸지만 그들은 진짜 불맛, 진짜 전쟁맛이 어떤지, 우리 군대의 ‘단숨에’ 공격정신이 어떤 것인지 몸서리치게 체험하게 될 것”라며 “전쟁폭언을 일삼는 극악한 민족반역의 무리들과는 더이상 말이 통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응당하다”고 밝힘.

나. 경제사화문화

● 北 “개성공단 건드리면 다시 군사지역으로 만들 것”(2/6, 연합뉴스)

- 개성공단 등의 대북 반출물품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통일부의 방침에 대해 북한이 “개성공단을 건드리면 이를 다시 군사지역으로 만들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함.

- 북한의 내각 기관인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북한)는 6·15정신의 견지에서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의 존속을 바라지만 만일 그 누가 어떤 형태라도 개성공단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우리에게 대한 극악한 제재로 간주하고 개성공단에 대한 모든 특혜를 철회하고 그 지역을 우리의 군사지역으로 다시 만드는 등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北매체 “국방부 공개 北핵실험장은 영화 속 상상 장면”(2/8, 우리민족끼리 TV)**

- 북한은 8일 우리 국방부가 최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내부 구조가 담겼다고 공개한 사진이 “예술영화에서 나온 상상 장면”에 불과하다고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TV’를 통해 밝힘.
- TV는 이날 국방부가 지난 4일 풍계리 핵실험장 내부 구조를 분석해 발표하는 장면을 담은 ‘북의 극비 어디서 얻었나 했더니...’라는 제목의 2분 17초짜리 동영상을 게재함.
- 이 동영상은 국방부가 북한 지하 핵실험장의 갱도 입구와 차단문 9개, 핵폭풍·잔해 차단벽 3개 등을 공개하고 분석하는데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도움까지 받았다고 “어처구니없는 것은 그들이 이 극비의 결정적 증거로 내든 것이 북의 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 4부의 캡처 화면”이라고 주장함.

● **남북 긴장에도 작년 경제교역 역대 최고...20억\$ 육박(2/9, 연합뉴스)**

- 9일 관세청이 집계한 ‘2012년 남북교역 현황’을 보면 작년 한 해 대북 반출액은 8억 9천 626만달러, 반입액은 10억 7천 393만달러이며 반출액은 2011년보다 13.4%. 반입액은 19.3% 증가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반출과 반입을 더한 교역규모는 19억 7천 18만달러로 2010년 최고기록(19억 149만달러)을 2년 만에 갱신했으며 남북 교역은 개성공단과 연결된 도라산육로를 이용한 규모가 전체의 99%에 달함.

■ **기타 (대남)**

- 【중통 논평】李大統領의 ‘특별사면’ 단행은 “국민대통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유지와 치부를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는 “또 다른 범죄를 만들어내는 2종의 범죄로 된다”고 지속선동(2.4.중통)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2.11-2.17

2월

3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평양 만수대 김정일동상, 코트 벗고 점퍼 차림 ‘변신’(2/11,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설을 맞아 주민들이 김일성 주석과 김 위원장 주석의 동상이 나란히 세워져 있는 만수대언덕을 찾아 현화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1면에 게재함.
  - 이 사진을 보면 코트를 걸친 김일성 동상 모습은 과거와 다르없지만 지난해 12월 김 위원장 1주기 때만 해도 코트를 입은 모습이었던 김정일 동상이 점퍼 차림으로 바뀌었음.
- **北김정은, ‘김정일 시계표창’ 제정·수여(2/15,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름이 새겨진 ‘김정일시계 표창’을 제정하고 15일 유공자들에게 이 표창을 처음으로 수여함.
  -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의 71회 생일(2월 26일)을 하루 앞둔 이날 ‘김정일시계 표창’ 첫 수여식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림.
- **北 김정일 생일 맞아 다양한 경축행사(2/1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1회 생일(광명성절)을 맞아 김일성·김정일 동상 제막식, 미술전시회, 음악회 등 전국에서 크고 작은 경축행사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평양에 있는 만경대혁명학원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일성·김정일 동상 제막식을 가짐.
  - 이 자리에는 최영림 내각총리, 최룡해 군총정치국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현영철 군총참모장, 김격식 인민무력부장, 김경희 노동당 비서 등이 참석함.

- 최룡해 국장은 제막사에서 “전체 인민군 장병들은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싸움준비 완성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 군력을 강화함으로써 날강도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 적대시 책동을 짓부시며 일단 명령만 내리면 침략자들을 단숨에 격멸소탕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 北 김정은-리설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종합)(2/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1회 생일인 ‘광명성절’을 맞아 당·군 주요인사들과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과 리설주는 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노동적위군 명예위병대 대장의 영접보고를 받은 뒤 김 위원장 시신이 있는 영생홀과 훈장보존실, 열차 보존실 등을 둘러봄.

■ 김정은동향

- 2/12, 김정은 黨 제1비서, 원군사업과 중요대상건설 지원 일꾼·근로자들(농업과학원 연구사, 칠성각 종업원 등)에게 ‘감사’ 전달(2.12,중방)
- 2/15, 김정은 黨 제1비서, 2.15 김정일 이름이 새겨진 시계표창 첫 수여식 참석(2.15,중통·중방 중앙TV)
  - 黨 중앙위 회의실에서 조국보위와 강성국가 건설에서 위훈을 세운 군인들과 과학자, 기술자, 노력혁신자들에게 시계표창 수여
  -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장성택, 김경희,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김영춘, 강석주, 리용무, 오극렬,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곽범기, 문경덕, 주규창, 조연준 등
- 2/16, 김정은 黨 제1비서, 2.16 리설주와 함께 ‘김정일생일’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2.16,중통·중·평방)
  - 최룡해·장성택·현영철·김격식·김경희·박도춘·김영춘·현철해·김원홍·김정각·주규창·김경옥·윤정린·최부일·리영길·손철주·렴철성·조경철·윤동현·강표영·리명철·김락겸·박정찬·김춘삼·김영철·전창복 등 참
  - 김영남·최영림 등 黨과 국가 책임일꾼들 駐北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무관단 재일본조선인 대표단 등 외국손님들, 금수산태양궁전 참배(2.16,중통·중방)
  - 黨·무력·정권기관·사회단체·성·중앙기관·인민군들과 駐北 중국 대사 등, 2.16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헌화(2.16,중통·중방)
  - 강계시·함흥시 등 각도 소재의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인민군·주민 등 참배
- 2/16, 김정은 黨 제1비서, 2.16 만경대혁명학원에 건립된 김일성-김정일 동상 제막식 참석(2.16,중통·중·평방)



- 최영림·최룡해(제막사)·장성택·현영철·김격식·김경희·김기남·김영춘·리용무·오극렬·현철해·김정각 등 참가

#### 기타 (대내 정치)

- 조선노동당 중앙위 정치국회의, 2.11 평양에서 진행(2.12,중통·중방)
- '정권수립일(9.9절) 65돌과 정전협정체결일(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일,7.27) 60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할 데 대하여'에 대한 결정서 채택과 대책적 내용들(10가지) 결정
- 김정일 생일 경축 백두산밀영 결의대회, 2.12 김기남·김영춘·전용남(「청년동맹」위원장) 등 참가  
下 진행(2.12,중통)
- 김정일 생일 기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2.15 평양체육관에서 진행(2.15,중통·중방·중앙TV)
-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장성택, 김경희, 현영철, 김격식,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김영춘, 양형섭, 리용무, 강석주, 오극렬, 현철해, 김원홍, 김정각,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곽범기, 문경덕, 주규창, 노두철, 리병삼, 조연준, 김영대, 유미영 등
- 제3차 핵실험은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에 대처한 정당당한 대응조치,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을 더욱 강도높이 벌어나갈 것임.

## 나. 경제

### ● 北, 작년 스위스 시계 수입액 70% 증가(종합)(2/12,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은 지난해 스위스 시계 1천 499개(20만 8천 달러 어치)를 수입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스위스시계산업연합' 자료를 인용해 12일 보도함.
- 북한이 지난해 수입한 스위스 시계는 기계식 손목시계 365개, 전자식 손목시계 1천 134개로 2011년 전체 수입량 1천 513개보다 조금 줄었지만 수입액은 12만 2천여 달러와 비교해 70% 증가함.

## 다. 군사

### ● 北, 핵실험 전날 ICBM급 'KN-08 미사일' 엔진시험(2/17, 연합뉴스)

- 북한이 3차 핵실험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신형 장거리 미사일의 엔진 성능개량 시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은 핵실험 하루 전인 지난 1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로켓발사장(서해위성발사장)에서 'KN-08' 장거리 미사일의 엔진 성능개량 시험을 했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17일 전함.

## 라. 사회·문화

### ● 北 평양에 24시간 영업 약국 등장(2/11, 연합뉴스)

- 11일 북한과 스위스 기업이 합작한 '평스제약합영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8월 평양시 중구역에 하루에 24시간 영업하는 '대동문 약국 체인점'을 열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평스제약합영회사는 "대동문 체인점은 평양에서 하루에 24시간, 한 주에 7일간 영업하는 첫번째 약국"이라며 이 약국이 평양에서 최고층 아파트 단지의 1층에 있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에서 가깝다고 소개함.

##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북한 ‘광명성절’ 앞두고 중국서 방북 행렬(2/14, 연합뉴스)
  -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지 이틀 만인 14일 북한과 접경한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1번째 생일(2월 16일)을 앞두고 방북 행렬이 이어짐.
  - 매일 한차례 왕복 운행하는 단둥-평양 국제열차는 평소 2~3량으로 편성됐던 것이 이날은 객차를 6량으로 크게 늘림.
  
- 주한스위스대사 “핵실험에도 北 인도적 지원 계속”(2/16, 연합뉴스)
  - 요르크 알로이스 레딩 주한 스위스대사는 스위스 정부가 최근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6일 전함.
  - 레딩 대사는 16일 한 스위스 수교 50주년을 맞아 대사관저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 입장과 스위스 유학파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에 개인 의견을 소개함.

### 기타 (대외)

- 美 핵잠수함·이지스순양함의 韓美연합대잠수함훈련 참가 및 한반도 수역으로 항공모함 기동 관련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리는 미제의 기도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무모한 도발을 걸어온다면 철저히 격멸 소탕해버릴 것’이라고 주장(2.11.중통·노동신문/핵전쟁 도화선에 불을 달리는 책등)

### 나. 6자회담(북핵)

- 北, 3차 핵실험 강행...함북 길주서 인공지진 발생(종합)(2/12, 연합뉴스)
  -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 57분 50초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규모 5.0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진앙의 위치는 북위 41.17도, 동경 129.18도로 분석됐으며 이곳은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 부근임.

● **北핵실험 폭발력 6~7kt추정...“중폭핵분열탄엔 못미쳐”(2/12, 연합뉴스)**

- 북한이 12일 실시한 3차 핵실험의 파괴력이 6~7kt(킬로톤)으로 지난 1, 2차 핵실험 때보다 파괴력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 핵실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1시 57분경에 북한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규모 4.9로 추정되는 지진이 관측됐다”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평가한 진도가 4.9이고 이를 핵폭탄으로 환산하면 폭발 규모는 6~7kt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힘.

● **조선중앙통신사 발표 전문(2/1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2일 제3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다음은 중앙통신이 전한 발표보도 전문임.
- 우리 국방과학부문에서는 주체102(2013)년 2월 12일 북부지하핵실험장에서 제3차 지하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 핵실험은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평화적위성발사권리를 란폭하게 침해한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핵실험은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원자탄의 작용특성들과 폭발위력 등 모든 측정결과들이 설계값과 완전히 일치됨으로써 다중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되었다.
- 이번 핵실험은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강성국가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중대한 계기로 될것이다.』

- **오바마 “北핵실험은 도발행위…필요조치 단행”(종합)(2/12,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을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면서 강한 어조로 규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은 오늘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는 지난해 12월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은 ‘심각한 도발 행위(highly provocative act)’”라고 지적함.
  - 그러면서 “이는 지역 안정을 해치고, 수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지난 2005년 북핵 6자회담의 9 19 공동성명의 합의를 어기고, 확산 위협을 증대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함.
  
- **北외무성 “2, 3차 대응할 수도…美, 양자택일해야”(종합)(2/12, 조선중앙TV)**
  - 북한은 12일 실시된 핵실험을 1차 대응조치라며 미국이 적대적으로 정세를 복잡하게 하면 2, 3차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조선중앙TV가 전함.
  -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의 제3차 핵실험은 미국이 대조선적대행위에 대처한 단호한 자위적 조치이다”라며 “위성발사 권리에 대한 침해는 곧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로서 절대로 용납못할 엄중한 적대행위”라고 주장함.
  - 또 “원래 우리에게는 핵실험을 꼭 해야할 필요도 계획도 없었다”며 “이번 핵실험의 주된 목적은 미국의 날강도적인 적대행위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분노를 보여주고 나라의 자주권을 끝까지 지키려는 선군 조선의 의지와 능력을 과시하는데 있다”고 밝힘.
  
- **北, 3차 핵실험 강행…“2·3차 대응조치” 위협(종합)(2/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제3차 지하 핵실험(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이번 핵실험은 이전보다 폭발력은 크면서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됐다”고 발표함.
  - 또한 “다중화된 우리 핵 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됐다”고 언급, 기존의 플루토늄이 아닌 고농축우라늄(HEU)을 이용한 핵실험 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함.

- **오바마 “핵실험 도발은 북한 더욱 고립시킬 뿐”(종합)(2/13,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2기 임기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현명한 선택’을 촉구했다고 13일에 연합뉴스가 전함.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미국 동부시간: 한국시간 13일 오전 11시)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들의 확산을 막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주도할 것”이라며 “어젯밤 우리가 본 것과 같은 (핵실험) 도발들은 그들을 더욱 고립시킬 뿐”이라고 밝힘.
  - 그는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해야만 그들의 안보와 번영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함.
  
- **외통위,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2/13, 연합뉴스)**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으로 조정된 결의안은 “국회는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으며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내용을 담음.
  
- **50개국 5개 국제기구 규탄성명(종합)(2/14, 연합뉴스)**
  -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13일 오후 현재 50개 국가와 5개 국제기구가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14일 전함.
  - 외교통상부는 배포 자료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포함, 50개국이 북 핵실험을 규탄하는 성명 등의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힘.
  - 유엔과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등 5개 지역·국제기구도 규탄 성명을 냈음.
  
- **北 “조선반도는 우발적 사건에도 전면전 갈 수 있어”(2/1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오늘의 조선반도 정세는 자그마한

- 우발적 사건에도 능히 지역전체를 뒤흔들어 전면전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엄혹하고 침예한 상태”라고 주장함.
- 북한은 이날 ‘조선반도 사태악화의 책임은 도발자들이 져야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주권국가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걸고 벌어지는 적대세력들의 도발책동이 계단식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이어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 한미 전력의 핵잠수함과 이지스함을 동원해 동해에서 해상훈련을 한 것 등을 거론하며 “조선반도에 조성되는 엄중한 정치군사 정세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우리 공화국을 말살하려는 노골적인 침략행위”라고 비난함.

● 北, 외신 핵실험 보도 소개...中매체 반응 ‘누락’(2/13,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대내용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은 13일 “우리 공화국이 제3차 지하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소식을 12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다”며 세계 각국의 보도내용을 소개함.
- 방송은 먼저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처해 제3차 지하핵실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고 소개하며 이번 핵실험이 이전보다 폭발력이 크고 소형화·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했다는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인용했다고 전함.
- 또 쿠바의 통신사, 오스트레일리아의 ABC방송, 영국의 BBC방송, 미국의 AP통신·미국의소리(VOA) 방송, 일본의 교도통신·지지통신·마이니치신문·도쿄신문·NHK방송이 ‘조선 제3차 지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라는 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타전했다고 소개함.

● 北 “우리도 ICBM 가져야...제재할테면 하라” 위협(종합)(2/14, 노동신문)

- 북한은 3차 핵실험 강행 사흘째인 14일에도 국제사회의 제재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밝힘.
- 신문은 이날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는 제목의 ‘정론’에서 “제국주의가 핵무기를 잡으면 우리도 핵무기를 잡아야 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면 우리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해야 하며 그 어떤 우주 무기로 위협하면 우리도 우주 무기로 원수들에게 공포를 줘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우리의 핵은 정의의 선택이며 인류의 진정한 평화”라며 “그것은 제국주의에 대한 최고의 징벌이며 천 년의 한이 맺힌 분노와 증오의 산아”라고 밝힘.
- **北 ‘핵실험 성공’ 자축…“최대 격동상태 견지”(2/14,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은 14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군인과 주민들이 대규모로 모여 ‘군민연환대회’를 열고 제3차 핵실험의 ‘성공’을 자축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녹음실황’으로 보도함.
  - 김기남 노동당 선전 담당 비서는 대회 연설에서 제3차 핵실험을 “민족사적 쾌거”라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대처한 단호하고도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함.
  - 또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책동이 최절정에 달하고 자위적인 핵 억제력에 의거해 경제건설에 힘을 집중하려던 우리의 노력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된 것과 관련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치솟는 분노와 멸적의 기상을 안고 나라의 자주권을 결사 수호하기 위해 전면 대결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고 말함.
- **미국 상원 외교위, ‘北 핵확산 금지법안’ 승인(2/15, 연합뉴스)**
  - 미국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14일(현지시간) 북한의 핵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됐다고 연합뉴스가 15일에 전함.
  - 상원 외교위는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외교위원장이 전날 발의한 ‘북한의 핵확산 및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A bill to prevent nuclear proliferation in North Korea, and for other purposes·S.298)’을 통과시킴.
- **北김영남 “핵실험은 美적대행위에 대한 정당 조치”(2/15, 연합뉴스)**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에 대해 “우리 존엄과 자주권을 유린하고 조선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함.
  - 김 상임위원장은 이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1회 생일인 ‘광명성절(2월 16일)’을 맞아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 연설에서 이번 제3차



핵실험은 “합법적인 평화적 위성발사 권리를 난폭하게 침해한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에 대처한 정정당당한 대응조치”라며 이같이 주장함.  
 - 또 유엔의 대북제재 등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에 대해 “오직 총대로 미국과 기어이 최종 결판을 내고야 말 천만군민의 분노와 적개심을 총폭발시키고 있다”며 “정의의 위업에 맞서는 자들에게 무서운 보복과 철추를 안기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기어이 성취해 온 세계의 자주화 위업을 앞장서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북한, 연내 추가 핵실험 계획 중국에 전달(종합)(2/15, 로이터통신)**

- 북한이 연내 핵실험을 한 두 차례 더 실시할 계획임을 중국에 전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북한과 중국의 고위관계자에게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소식통을 인용해 15일 보도함.
- 북한의 메시지를 직접 알고 있는 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이 회담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4차, 5차 핵실험과 함께 로켓 발사를 곧, 아마도 올해 안에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핵실험금지기구, 北 인공지진 규모 5.0→4.9 수정(2/16, 연합뉴스)**

- 유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가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의 규모를 당초 5.0에서 4.9로 다소 낮췄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CTBTO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96개 관측소에서 북한의 지진활동에 대한 관측자료를 보내왔다”며 수정된 규모인 4.9가 확정된 값이라고 전함.

■ **기타 (6자회담(북핵))**

- ‘美 3단계 요격미사일실험 진행 관련 ‘그 누구의 미사일 위협설을 코에 걸고 힘에 의한 세계제패 전략을 실현해보려고 집요하게 날뛰고 있다’고 비난하며 ‘우리(北)를 선제공격한다면 무서운 보복타격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2.11,중통)
- 【외무성 대변인 담화(2.12)】 ‘이번 핵실험은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한 1차적 대응조치로, 미국이 끝까지 적대적으로 나오면 2, 3차 대응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위협(2.12,중통·중방·평방·중앙TV)
  - 적대세력이 떠드는 선박검색, 해상봉쇄 등은 전쟁행위로 간주될 것이며 본거지들에 대한 무자비한 보복타격을 유발시키게 될 것임.
  - 미국은 지금이라도 우리의 위성발사권리를 존중하여 완화와 안정의 국면을 열겠는가 아니면 대북적대시정책을 끝까지 추구하여 정세폭발을 향한 잘못된 길을 계속 걸겠는가 하는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것임.

- 【중앙통신사 논평】 '제3차 지하핵시험은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대처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 2·3차 초강경 조치의 실시는 미국의 차후선택에 달려있다'고 거듭 주장(2.13,중통/미국의 적대시정책과 전횡에 대처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

### 3 대남 동향

- 北 “南, 제재 강화하면 무자비한 보복타격” 위협(2/15, 노동신문)
  - 북한은 15일 핵실험에 따른 남한 정부의 대북제재 강화가 보복타격을 유발할 것이라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함.
  - 신문은 이날 ‘제재 강화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남조선 괴뢰패당이 미국에 아부추종하여 계속 제재강화로 나간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 행위로서 선박 검색과 해상 봉쇄 등 각종 제재의 본거지들에 대한 우리의 무자비한 보복타격을 유발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이어 “도발자들은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줄 시각은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다”며 “민족을 배반하고 제재 강화에 나서는 역적무리들에게는 비참한 종말 밖에 차례질 것이 없다”고 주장함.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2.18-2.24

2월

4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北, 올해 신조어로 ‘인민대중제일주의’ 부각(2/18, 연합뉴스; 노동신문)**
  - 북한 김정은 정권이 올해 2년차를 맞아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새로운 표현을 부각해 눈길을 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전함.
  - 지난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1회 생일을 맞아 게재한 사설에서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한평생의 이념은 인민대중제일주의”라며 “아버이 장군님의 사상도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것이고 장군님의 정치도 인민을 위한 인덕정치”라고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주장함.
- **北 김락희 전 부총리 사망…김정은 조화(2/18,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김락희(80·여) 전 내각 부총리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18일 전함.
  - “김정은 동지께서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내각 명예참사인 김락희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하였으나 김락희가 언제 사망했는지는 밝히지 않음.
- **北, 핵실험 공로자 평양 초청…‘영웅 만들기’(종합)(2/20, 연합뉴스;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0일 제3차 핵실험에 기여한 과학자 등을 평양에 초청, 대규모 환영행사를 개최하는 등 이들을 ‘영웅’으로 치켜세우며 축제분위기 조성에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북한 매체들은 20일 “제3차 지하핵실험 성공에 공헌한 과학자·기술자·노동자·군인건설자·일꾼들이 오늘 오후 평양에 도착했다”고 전함.
- **北, ‘김정은 얼굴’ 내세운 우상화 본격화(2/20, 연합뉴스; 조선신보)**
  - 북한이 젊은 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얼굴을 활용한 우상화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고 연합뉴스가 20일 전함.

- “조선(북한)에서 김정은 원수님의 영상을 모신 우표가 처음 발행됐다”며 “관계자에 의하면 신년사를 하시는 최고 영도자의 영상을 담은 우표가 발행되는 것은 근 70년에 달하는 조선우표 역사상 이번이 처음 되는 일이라고 한다”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조선일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0일 밝힘.

● **北 김정은, 핵실험후 첫 軍 시찰…강경대응 과시(?) (종합)(2/21,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 1주일여 만에 올해 첫 군부대 시찰해 나서 그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고 연합뉴스가 21일 전함.
- 이번 군부대 시찰은 북한이 미국의 ‘적대정책’에 맞서 핵실험뿐 아니라 “2,3차 대응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등 대미·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시선을 끄.
- 김 제1위원장이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소속 323군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하였으며, 이는 올해 들어 첫 군부대 방문일뿐 아니라 제3차 핵실험 이후 첫 현지시찰로 실제 시찰은 20일 이뤄진 것으로 보임.

● **北 “핵실험은 핵보유국 인정시킨 정치적 승리”(2/21,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21일 제3차 핵실험에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군인건설자, 일꾼들에게 특별감사문을 전달하는 모임을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전함.
- 모임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김기남·최태복·박도춘 당비서,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최 총정치국장이 특별감사문을 전달했음.
- 특별감사문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3호 2호기’의 성과적 발사에 이어 성공적으로 진행된 제3차 지하핵시험은 전략로켓 및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공화국 지위를 국제사회에 확고히 인정시키고 세계 정치구도의 역량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정치군사적 대승리”라고 강조함.

- **北 김정은 연일 軍부대 시찰...실탄사격훈련 지휘(2/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제526대연합부대 관할 구분대의 실탄사격이 포함된 공격전술연습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제526대연합부대 구분대의 공격전술연습을 지휘하면서 직접 훈련시작 명령을 내리고 각종 화력무기 사격장면을 참관했으며, 훈련이 끝난뒤 “인민군대에서 얼마 전 진행된 당중앙군사위원회 정신을 사상적으로 접수하고 훈련 열풍을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의 훈련을 통해 실증해줬다”고 말함.
  
- **北 김정은, 軍 사상교육 간부와 기념촬영(2/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 인민무력부청사의 김일성·김정일 동상 앞에서 ‘전군당강습지도일꾼회의’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22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이번 회의가 첫 당 강습이 시행된 지 35주년을 맞아 열렸으며 “인민군대를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인 계기로 된다”고 강조함.
  - 또 회의 참가자들은 올해를 ‘군력강화의 해’로 정한 당의 의도를 실현하는 투쟁에서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할 충정의 맹세를 다짐함.
  
- **北 김정은, 軍비행훈련 지도...3일 연속 부대시찰(2/23,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630대연합부대의 비행훈련과 항공육전병강하훈련을 지도했다고 23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인민군대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정신을 군사정치사업에 구현하여 군력강화의 기본인 싸움준비완성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며 “인민군군인들은 적들이 움쩍하기만 하면 다지고 다져온 무진막강한 전투력을 총폭발하여 놈들이 정신을 차릴새 없이 호되게 답새기고(다그치고) 침략의 아성을 흔적도 없이 날려버려야 한다”고 말함.

● 北, 핵실험 유공자 1만1천여명에게 표창(2/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의 성공에 이바지한 1만 1천592명의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군인건설자, 일꾼에게 표창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함.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21일 발표한 정령에서 핵실험에 공로를 세운 100명에게 공화국 영웅칭호와 금별메달,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한다고 밝힘.

● 北, 평양서 '전국 3대혁명소조원 열성자회의 개최'(2/24, 조선중앙TV)

- 북한 조선중앙TV는 24일 "전국 3대혁명소조원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이 오늘 평양에 도착했다"며 조만간 전국 단위의 3대혁명소조원 열성자 회의가 열릴 것임을 예고함.
- 중앙TV는 "이들(열성자들)의 가슴 마다에는 3대혁명소조운동 발단 40돌이 되는 올해에 전국 3대혁명소조원 열성자회의를 마련해준 당의 뜻을 깊이 새겨안고 3대혁명소조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위업 실현에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결의가 넘쳐 있었다"고 전함.

■ 김정은동향

- 2/18, 김정은 黨 제1비서, 2.18 故 김락희(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내각 명예참사) 빈소에 화환 전달 (2.18,중통)
- 2/21, 김정은 黨 제1비서, 오중흠7연대칭호를 수여받은 제323군부대 시찰(2.21,중통·중방)
  - 최룡해, 현영철, 김영춘, 황병서, 라청일, 홍영철, 박정천 동행
  - △군부대 직속중대에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군부대 관하 1대대 3중대와 4대대 5중대에 쌍안경과 자동보총, 기관총을 선물 및 기념촬영
- 2/22, 김정은 黨 제1비서, 제526대연합부대 관하 구분대의 실탄사격을 배합한 공격전술연습 지도 (2.22,중통·중방)
  - 최룡해, 현영철, 김격식, 리영길, 손철주, 럽철성, 윤동현, 방관복, 윤동희, 황병서, 홍영철 동행
- 2/22, 김정은 黨 제1비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건설장 시찰
  - 최룡해 동행('푸에블로호' 전시할 도크 건설장도 시찰)
  - 김정은 黨 제1비서, 2.19 체육부문 여러 단위에 문화 및 체육·유전기재 전달(2.21,중통)
- 2/23, 김정은 黨 제1비서, 항공 및 반항공군·제630대연합부대 비행훈련과 항공육전병 강화훈련 지도(2.23,중통·중·평방)
  - 최룡해·현영철·김격식·김영춘·리영길·손철주·조경철·윤동현·리병철·최경성·림광일·강기섭·손청남·로흥세·윤정린·최부일·황병서·리청일·홍영철 등 동행
  - 김정은은 이날 저녁 훈련에 참가한 부대 장병들을 평양에 불러 기념촬영



- 김정은, '전군당강습지도일꾼회의'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인민무력부 김일성-김정일父子 동상 앞)(2.22, 중·평방·중통)
- 최룡해·리병삼·김경옥·황병서·손철주·염철성 등 참가

#### 기타 (대내 정치)

- 최영림(내각총리), 인민군열사묘·국가과학원 잔디연구소 건설정형 및 평양방직기계공장 설비운 영실태 현지요해(2.21, 중통)
- 北,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신년사 모습 등의 우표(소형전지 1종, 묶음전지 1종, 개별우표 4종) 발행(2.20, 중통)
- 김정일 생일 경축 재중조선인총연합회 대표단, 2.20 김정은 黨 제1비서에게 편지발송(2.21, 중방)
- 사회주의경쟁 총화모임, 2.22 리철만(내각 부총리)·리영수(黨 부장)·황민(농업상) 등 참가下 청년 중앙회관에서 진행(2.22, 중통)
- 삼지강협동농장(黃南 재령군)에 '黨·내각 名義 표창과 2012년 사회주의경쟁순회우승기' 수여

## 나. 경제

- **북한 고려항공, 신형 안토노프 여객기 도입(2/19, 연합뉴스; 인테르팍스 통신)**
  - 북한 고려항공이 우크라이나-러시아제 신형 안토노프 An-148-100 제트 여객기 2대 중 첫 번째 여객기를 인도받았다고 연합뉴스가 19일 전함.
  -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18일 우크라이나 항공업체 소식통의 말을 인용, 지난 2010년 7월 체결한 계약에 따라 안토노프 여객기가 이달 초 북한에 인도됐다고 보도함.
  - 이 소식통은 "북한과의 계약에 따라 키예프에서 제작 중인 나머지 여객기 한 대는 봄이나 여름에 인도할 계획"이라고 공개함.
- **北 "우주정복상 받자" 경제현장 증산 독려(2/23,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북한이 작년 12월 '광명성 3호 2호기'의 발사를 계기로 상(賞)까지 만들어 주민들의 경제 성과를 독려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전함.
  - 이 상은 작년 12월12일 '광명성 3호 2호기'의 성공적 발사를 기념하는 의미를 담은 '12월12일우주정복상'이며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22일 밤 '실리가 있는 지방산업공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평안남도 안주시의 청천강피복공장을 소개할 때 공장 내부에 세워진 도표를 내보냄.

## 다. 사회문화

- **北, 올 아리랑 공연 7월27일 개막(2/18, 연합뉴스; 뉴코리아투어스)**
  - 북한의 대규모 집단체조(매스게임) 아리랑 공연의 올해 일정이 확정된 것으로 연합뉴스가 18일 전함.
  - “올해 아리랑 축제와 매스게임의 날짜는 7월27일부터 9월9일까지로 확인됐으며 (공연은) 9월 말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라며 “이 기간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특이하고 화려한 이 공연을 관람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미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인 ‘뉴코리아투어스’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함.
  
- **北 “지난해 50여개국 관광객 방북”(2/19,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작년 한 해 동안 세계 50여 개의 나라와 지역의 관광객이 방북했다고 19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관광객 수는 2000년대에 들어 부단히 증가했으며 2009년 이후 급격히 늘었다”면서 “특징적인 것은 유럽지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하였지만, 지난해 방북한 관광객 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음.
  
- **北 무상치료 60년 선전…평균수명은 오히려 ‘퇴보’(2/20, 연합뉴스)**
  - 모든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이른바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는 북한이 체제우월성을 자랑할 때마다 전면내세워온 대표적인 사회주의 정책이나, 북한의 이같은 주장은 오히려 주민들의 평균수명이 지난 20년간 상당히 ‘퇴보’했다는 점을 스스로 확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연합뉴스가 20일 전함.
  
- **북한 여성들 선택 가능한 헤어스타일은 18개(2/22, 연합뉴스; 데일리메일)**
  - 북한 여성들은 서구의 풍조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가 인가한 적격 헤어 스타일 중 하나만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미녀 스타 제니퍼 애니스톤 처럼 헤어 드라이어로 매만져야 하는 긴 머리 헤어 스타일을 북한에서는 볼 수가 없다고 연합뉴스가 22일 전함.

- 북한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헤어 스타일은 국가의 공식 인가를 받은 18개라고 영국의 데일리메일 인터넷판은 21일(현지시간) 보도함.

● **北, 외국전문가와 ‘산간농업’ 책자 발간(2/23,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농업학자들이 외국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언덕이나 산에 나무와 작물을 함께 심는 이른바 ‘산간농업’에 관한 책자를 발간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전함.

##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북·중 접경 단둥, 핵실험 이전과 변화없어(2/18, 연합뉴스)**

-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음력설) 연휴를 마치고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온 18일 중국 내 최대 대북 교역 거점인 랴오닝성 단둥(丹東)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전과 다른없는 모습이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전함.
- 최근 중국 당국이 대북 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 움직임이 포착됐지만, 기본적으로 양국 간 교역에는 아직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게 현지 무역상들의 전언임.

● **북·중 접경 관광지, 핵실험에도 관광객 늘어(2/19, 연합뉴스; 신화망)**

-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에도 이번 춘제(음력설) 연휴 기간 북한과 접경한 중국의 주요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 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19일 전함.
- 춘제 연휴인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백두산(중국 명칭 창바이산·長白山)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은 총 3만4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가량 증가했다고 신화망 등이 19일 밝힘.

- **북한 나선특구에 중국 전력 6월께 공급(2/19, 연변인터넷방송)**
  - 북한과 중국이 공동 개발 중인 북한 나선 경제특구에 오는 6월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전력 공급이 시작될 전망이라고 연변인터넷방송이 19일 보도함.
  - 두만강 유역의 대북 교역 거점인 지린성 훈춘(琿春)시는 올해 북한에 대한 송전사업을 비롯한 대북 경제협력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방송은 전함.
  
- **중국내 북한식당 종업원 등 잠적(2/19, 마이니치 신문)**
  - 북한식당 종업원 등으로 중국에서 일하던 북한 여성 2명이 최근 수개월 사이에 잇달아 잠적했다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19일 베이징발로 보도함.
  - 신문은 사라진 북한 여성들이 한국 측 브로커나 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북한에 사는 가족과 함께 탈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함.
  
- **북한, 이번엔 화염싸인 오바마 미군 동영상(2/20,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화염에 휩싸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군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0일 전함.
  - 이 동영상은 '미국의 덕이다'라는 제목으로 3차 핵실험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약 1분 30초간 이어지며, 게시자는 '재미교포 푸른누리'로 19일(현지시간) 현재 유튜브 등에 올라있음.
  
- **미국, 북한인 비자 발급 급감...관계 경색 반영(2/20, 연합뉴스)**
  - 지난해 미국 정부가 북한인에게 발급한 비자(입국사증)가 100건에도 못미친 것으로 나타나 최근 북미관계 경색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연합뉴스가 20일 전함.
  - 19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의 '2012회계연도(2011년 10월~2012년 9월) 비이민 비자 발급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북한인에 대한 비자 발급 건수는 전년도(111건)에 비해 22%나 감소한 87건으로 집계됨.

- **北, 관광객 유치 안간힘…낚시·마라톤도 상품화(종합)(2/20, 연합뉴스; 영파이오니어투어스(YPT))**
  - 북한이 제3차 핵실험 강행 이후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 속에서도 외화 벌이를 위해 새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0일 전함.
  - 올해 4월과 5월 북한에서 마라톤 대회 관광상품과 낚시 관광상품을 각각 선보인다고 중국 베이징에 사무실을 둔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투어스(Young Pioneer Trous)'가 20일 밝힘.
  
- **北, 새 유람선 도입…외국인 금강산 관광 사업 박차(2/21, 연합뉴스; 노동신문)**
  - 북한이 새 유람선을 도입,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금강산 관광 사업에 본격 나섰다라고 연합뉴스가 21일 전함.
  - 함경북도 나진항에서 전날 싱가포르 관광선 '황성호'의 개업식이 열렸고 북한과 중국의 관광분야 관계자들과 나선시 근로자들이 참석했다고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1일 전함.
  
- **핵실험 후 北 방문 외국인 해외우편물 발송 금지돼(2/21, 연합뉴스; NK뉴스)**
  - 북한이 최근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북한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의 해외 우편물 발송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연합뉴스가 21일 전함.
  - 핵실험 이후 북한을 방문했던 2개 외국인 관광객 그룹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들었다면서 특히 유럽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이 본국으로 우편엽서를 보내는 것이 금지됐다고 미국의 북한전문 인터넷 매체인 NK뉴스는 21일 밝힘.
  
- **北, 러시아 공산당대회에 대표단 파견(2/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노동당 대표단이 21일 러시아연방 공산당의 제15차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함.
  - 대표단장은 리영철 당 국제부 부부장이 맡았으며,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북한이 지난 12일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불과 9일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됨.

- **北, 日 정부인사 ‘다케시마의 날’ 행사 참석 비난(2/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1일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매년 주최하는 이른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에 일본 정부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하는 것에 대해 “우리 민족의 영토주권에 대한 엄중한 유린”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전함.
  - 통신은 ‘일본 당국의 노골적인 침략선동’ 제목의 논평에서 “얼토당토않은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행사를 연례화 하다 못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그 격을 올리려는 것은 일본당국의 노골적인 침략선동”이라며 이같이 밝힘.
  
- **北, 러시아 공산당대회에 대표단 파견(2/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노동당 대표단이 21일 러시아연방 공산당의 제15차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표단장은 리영철 당 국제부 부부장이 맡았으며,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북한이 지난 12일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불과 9일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됨.
  
- **북한 나진항에 해상호텔 개업…관광객 유치 주력(2/22, 연합뉴스; 연변신문망)**
  - 북한이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늘리기 위해 관광 인프라 확충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전함.
  - 북한은 최근 함경북도 나선경제무역지구(나선특구) 나진항에 숙박과 해상관광 기능을 겸한 싱가포르 유람선 ‘황성(皇星)호’를 유치했다고 중국 연변신문망(延邊新聞網)이 22일 전함.
  - 황성호는 길이 138m, 폭 28m의 대형 유람선으로, 총 8개 층으로 이뤄진 배 안에 중·고급 객실과 면세점, 미용실, 주점, 휴게실, 공연식당 등 다양한 서비스 시설을 갖추.
  
- **北, 주한 美사령관에 통지문…‘키 리졸브’훈련 비난(종합)(2/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3일 한국과 미국이 내달 진행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연습이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것”이라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북한군 박림수 판문점대표부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당신측이 끝끝내 ‘방어적’이요, ‘연례적’이요 하는 허울을 쓰고 또다시 무모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 연습을 강행하는 것으로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들의 시간은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가장 고달픈 시간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밝힘.

#### 기타 (대외)

- 美 사이버사령부 규모 확대계획 등 관련 ‘인터넷 관리에서 차지하고 있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 사이버공간에 대한 패권을 노리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간섭과 선제공격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비난(2.21,평방/사이버 공간을 어지럽히는 검은 그림자)
- 北 노동당 대표단(‘리영철’ 黨 부부장), 2.21 러시아 공산당 제15차대회 참가차 평양 출발(2.21,중동)
- 北 대표, 2.19 유엔 현장 및 기구역할 강화에 관한 특별총 회의 연설에서 ‘△南 유엔군사령부 해체, △北 3차 핵실험 정당화, △유엔의 자주권 존중과 주권평등 원칙 준수’ 주장(2.22,중방·중통)

### 나. 6자회담(북핵)

#### ● 조선신보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美와 뒷거래” 비난(2/18, 조선신보)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이 각종 국제문제에서 “자기 ‘국익’을 챙기기 위해 막뒤에서 미국과 흥정하고 있다”고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8일 보도함.
- 신문은 이날 ‘국제관계의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변’이라는 제목의 시론에서 한반도, 중동, 북아프리카 등에서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의 침략과 전쟁, 정권 전복과 수탈 등 온갖 국가테러, 국가범죄가 허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함.
- 이어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올린데 대해 유엔 안보리가 제재결의를 날조한 것은 유엔 역사상 처음이며 현장 자체의 난폭한 위반이었다”며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들도 미국의 압박에 굴복함으로써 유엔 안보리는 세계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을 재증명했다”고 주장함.

● **일본 6자수석 방중...대북제재 협의(2/20, 연합뉴스)**

-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강화 문제 협의차 중국을 방문했다고 연합뉴스가 20일 전함.
- 스기야마 국장은 20일 카운터파트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만날 예정이며,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6자회담 참가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중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중국, 북한 핵실험 직후 주민들 건강 위험도 측정(2/20, 중국신문사)**

- 중국 정부가 북한 핵실험과 관련, 방사능 오염 여부와 주민들 건강에 미치는 위험도를 측정했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중국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가 20일 보도함.
-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방사능안전소 소속 측정 전문가 4명은 지난 12일 위생부의 긴급통지를 받고 전용기편으로 지린(吉林)성으로 긴급 출동하여, 북·중 접경지역 2개 현장에서 식품과 식용수 샘플 39개와 20개 조사 지점을 대상으로 방사능 오염 수준을 측정했다고 전함.

● **북한 핵실험장 남쪽 갯도서 움직임 포착..제설흔적(2/20, 연합뉴스; 38노스)**

-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곳으로 알려진 함경북도 풍계리의 핵실험장 서쪽 갯도는 큰 변화가 없으나 또 다른 남쪽 갯도 쪽으로 물자의 이동 흔적과 함께 도로와 시설 주변의 제설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위성사진을 통해 드러났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함.
- 북한의 3차 핵실험 사흘 뒤인 지난 15일 미국 디지털글로브사의 상업위성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찍은 위성사진을 핵실험 5일 전인 지난 7일에 촬영된 사진과 비교한 결과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부설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전문 온라인 매체 '38노스'는 20일(현지시간) 전함.

● **北 “美 강압에 핵 포기한 국가는 비극적 결과”(2/21,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1일 “미국의 강권과 압력에 눌려 핵을 중도에 포기한 나라들에 비극적 후과(결과)가 차려졌다”며 핵무기 보유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가 21일 전함.

- “우리(북한)의 선택이 얼마나 선견지명 있고 정당한 것이었는가를 명백히 실증해주고 있다”며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함.
- 또한, “(이런 사실이) 미국의 핵 공갈에는 타협이나 후퇴가 아니라 실질적 대응조치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우쳐주고 있다”며 “우리가 최후 선택한 것이 바로 ‘핵에는 핵으로’ 대항해야 한다는 전략적 결단”이라고 밝힘.

#### 기타 (6자회담(북핵))

- 日本의 ‘北 핵실험 관련 추가제재’(총련 부의장 재입국 불허, 조선학교 보조금 중단 등) 움직임을 ‘과거 최악은 청산하지 않은 채 非인도적 악행을 일삼는 日 보수정권은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거듭 비난(2.18,중통/일본 반동들의 상투적인 반공화국 대결광대극)
-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2.12일자), 2.19 유엔 안보리 공식문건 S/2013/91호로 배포(2.21,중통)

###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북한, 유엔 군축회의서 남한 ‘최종 파괴’ 위협(2/19, 연합뉴스)**
  - 북한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최근의 핵실험 이후 2차, 3차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한국을 “최종 파괴”(final destruction) 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전함.
  -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전용룡은 이날 회의에서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a new-born puppy knows no fear of a tiger)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한국의 변덕스러운 행동은 최종 파괴를 알릴 뿐”이라고 말함.
- **北 “南 최종파괴” 협박…核그림자 드리워지나(2/20, 연합뉴스)**
  -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이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언급한 대남 위협이 심상치 않게 들린다고 연합뉴스가 20일 전함.

- 북한 대표는 19일 유엔 산하 다자간 군축협상기구인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최근의 핵실험(3차 핵실험) 이후 2차, 3차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한국을 ‘최종 파괴’(final destruction) 하겠다고 위협하며,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a new-born puppy knows no fear of a tiger)는 속담까지 인용했다고 함.

● 北, ‘핵실험 규탄 국회결의문’ 접수 거부(2/21, 연합뉴스)

-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규탄한 우리 국회의 결의문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21일 전함.
- 정부는 21일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문’을 국회로부터 전달받아 판문점 남북 연락관을 통해 전달을 시도했으며, 결의문은 강창희 국회의장 명의로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에게 보내는 형식이었으나 북측은 “상부에서 (수령 여부에 대한) 얘기가 없다”면서 접수를 거부함.

● 北 “南, ‘반핵시위’ 조작보도로 北-中 이간질”(종합)(2/22, 연합뉴스)

-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22일 “최근 괴뢰역적패당이 우리의 제3차 핵실험을 걸고 조중(북중) 관계를 이간질하는 추악한 모략책동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지난 18일 괴뢰TV방송 ‘모닝뉴스’는 중국에서 우리 핵실험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듯이 날조한 동영상을 방영했다”며 조평통은 이날 서기국 보도에서 이같이 주장함.

● 北, 李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실명 비난(2/24,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이명박 역도의 저주스러운 집권기간이 드디어 끝장나게 됐다”며 “남조선 인민들을 기만 우롱하며 ‘대통령’ 감투를 쓴 역도가 지난 5년간 저지른 죄악은 실로 엄청나다”고 전함.
-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미 간 군사훈련,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3차 핵실험에 대한 한국정부의 태도 등을 거론하며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예속을 심화시키고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해치면서 조국통일 위업을 가로막은 것은 반드시 결산해야 할 엄청난 죄악”이라고 주장함.

## 나. 경제·사회·문화

### ● ‘민간차원 이산가족 교류’ 지난해 역대 최저(2/22, 연합뉴스)

- 민간 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가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22일 전함.
- 통일부가 22일 발간한 ‘2013년 통일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생사 확인 6건, 서신 교환 16건, 상봉 3건 등 총 25건을 기록했으며, 이는 정부가 1990년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저조한 기록임.

2.25-2.28

2월

5주차

1. 대내 동향

가. 정치

나. 군사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北 김정은, 4회 연속 軍시찰 주목…“무력시위 의도”(2/26, 연합뉴스)**
  - 장거리로켓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까지 단행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연일 군부대를 집중 시찰해 주목된다고 연합뉴스가 26일 전함.
  - 지난 21일(북한 매체 보도날짜 기준) 올해 들어 첫 군부대 시찰을 재개한 이후 1주일도 안 돼 네 번이나 군부대를 잇달아 찾았으며, 네 번째 군부대 시찰 소식은 26일 나옴.
  - 김 제1위원장이 포병부대들의 실전능력을 검열하려고 포병 화력타격훈련을 명령하고 현지에서 훈련을 지도했다는 내용으로 이번 군시찰에서 “싸움준비를 하루빨리 다그쳐 적과의 대결전에서 한몫 단단히 해야한다”(인민군 323군부대), “싸움준비를 완성하는데 박차를 가해야한다”(630대연합부대)며 호전적인 발언들을 쏟아냄.
  
- **北, 전방위 ‘핵보유국’ 표현…“核국가 지위 굳히기”(2/26,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우리민족끼리)**
  - 제14차 아시아마라톤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북한 김금옥 선수의 경기장면을 묘사하며, “핵보유국의 기상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시간이 흐를수록 속도를 높여나갔다”고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5일 전함.
  - 정월 대보름 소식을 전하면서 “(주민들이) 핵보유국 위용을 만천하에 과시한 긍지를 안고 정월 대보름을 즐겁게 보냈다”고 조선중앙방송도 소개함.
  - 노동신문을 비롯해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의 각종 매체는 25일 하루에만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이 담긴 글을 13편 이상 쏟아냄.

- **北 김정은, 쿠바 라울 카스트로에게 재임 축전(2/26,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에게 재임을 축하하는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26일 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축전에서 “나는 당신이 쿠바공화국 국가이사회(국가평의회) 위원장(의장)으로 다시 선거된 데 대해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며 “나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사회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한다”고 밝힘.
  
- **北김영철 경찰총국장, 강등 3개월만에 대장 계급 복귀(2/26, 연합뉴스; 노동신문)**
  - 작년 말 대장에서 계급이 강등한 것으로 알려졌던 김영철 북한군 경찰총국장이 대장 계급을 달고 공식 행사에 참석한 모습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6일 전함.
  - 신문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장병들과 함께 공훈국가 합창단공연을 관람했다는 소식을 북한 2면에 전하면서 함께 게재한 사진 속에 대장 계급장 단 김영철이 일어서서 손뼉을 치는 모습을 실음.
  
- **北, 시·도 당세포비서대회 개최(2/26, 연합뉴스; 노동신문)**
  - 북한이 전국의 노동당 말단 간부가 참가하는 ‘제4차 전당 당세포비서대회’에 이어 각 시·도에서 당세포비서대회를 열었다고 연합뉴스가 26일 전함.
  - 평양시, 황해북도, 평안남도, 황해남도, 평안북도, 남포시에서 시·도 당세포 비서들과 시·도 및 연합기업소 책임일꾼 등이 참가하는 세포비서대회가 각각 진행됐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6일 전함.
  
- **北 김정은 핵실험 유공자와 기념사진(2/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3차 핵실험에 참가한 유공자들과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전함.

- 통신은 “김정은 원수님께서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 수호를 위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진행한 지하 핵시험을 성공함으로써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과시하고 조선의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낙관을 안겨준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군인건설자, 일꾼의 위훈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힘.

● 北 농장에서 ‘포전담당제’ 확산되나(2/27, 조선신보)

- 북한 협동농장에서 가족단위 영농에 가까운 포전(圃田)담당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글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27일 보도함.
- 이날 신문은 지난해 진행한 농장들의 사회주의 증산경쟁에서 황해남도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의 3작업반 1분조가 전국적인 ‘본보기 분조’가 됐고 지난해 정보당 450여kg을 증산했다고 소개함.
- 이어 이 분조가 선진적 영농기술과 방법을 도입하고 지대적, 필지별 특성에 맞는 다수확 품종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여러 해 끈질긴 탐구로 선정된 다수확품종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포전담당제를 실시하여 농장원들 모두가 분조 농사를 자기들이 책임졌다는 자각을 더욱 높이도록 하고 있다”고 밝힘.

● 北, 30년 만에 3대혁명소조 전국회의 개최(종합)(2/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시절 지도력을 인정받은 계기가 됐던 3대혁명소조 운동의 전국 단위 회의가 약 30년 만에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전함.
- 통신은 28일 ‘전국 3대혁명소조 열성자회의’가 전날 평양에서 열렸다고 전했으며, 이는 전국 규모의 3대혁명소조 회의가 열린 것은 1984년 9월 이후 처음임.

■ 김정은동향

- 2/26, 김정은 黨 제1비서, 포병화력타격훈련 지도(2.26.중통·중방·평방)
- 최룡해·현영철·김격식·김영춘·리영길·손철주·렴철성·조경철·윤동현·김영철·박정천·윤동희·김택구·박동학·림광일·최부일·오일정·김경옥·리재일·라청일·홍영철 등 동행
- 2/26,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장병들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공연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관람 및 ‘감사’ 전달(2.26.중통·중방·평방)
- 최룡해·현영철·김격식·김영춘·김정각·리영길·손철주·렴철성·조경철·윤동현·김영철·박정천·윤동희·김택구·박동학·림광일·최부일·오일정·김경옥·리재일·라청일·홍영철 등 동행 관람

- 2/26, 김정은 黨 제1비서, 고경달(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정순원(황해남도수산관리국 산하 단위 지배인)·오순진(동림광산기계공장체육단 역기책임감독)에게 70회 생일상 전달
- 2/26, 김정은 黨 제1비서, 2.25 쿠바 국가이사회 위원장에 再선출된 '라울 카스트로 루쓰' 내각수상에게 축전(2.26,중통·중방)
- 2/27, 김정은 黨 제1비서, 제3차 핵실험 성공 위훈자들과 사진 촬영(2.27,중통)
  -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장성택, 김경희, 최태복, 박도춘, 김영춘,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곽범기, 문경덕, 조연준, 홍승무 등 참가
  - 제3차 지하핵실험 성공 위훈자들, 2.27 평양체류일정을 마치고 출발(2.27,중통)
- 2/28, 김정은, 2.27 '진달래 싸파리니' 진달래아동기금 회장에게 '결혼 축하 선물'을 지재룡 駐中北 대사 통해 전달(2.28,중방·중통)
- 2/28, 김정은 黨 제1비서, 2.28 리설주와 함께 北-美 농구팀 선수들의 혼합경기(류경정주영체육관) 관람 및 美 NBA 前 선수 '데니스 로드맨' 등 일행과 담화(3.1,중통·중방·평방)

### 기타 (대내 정치)

- 北,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신년사 모습 등의 우표(소형전지 1종, 묶음전지 1종, 개별우표 4종) 발행(2.20,중통)
- 김일성 시계표창: 59명, 김정일 시계표창: 19명, 김정은 표창장(黨 제1비서): 74명, 김정은 표창장(최고사령관): 22명 수여
- 최태복(黨 비서)·조연준(黨 제1부부장), 2.25 '3차 핵실험에 공헌한' 과학자·기술자·노동자·군인·건설자·일꾼들 숙소방문(2.25,중통·중방)
- '3차 핵실험에 공헌한' 국방과학부문 과학자 등을 위한 '생일축하연'(김정은 마련), 5.25 박도춘(黨 비서) 등 참가下 평양 고려호텔에서 진행(2.25,중통)
- '3차 핵실험에 공헌한' 국방과학부문 과학자 등, 2.25 인민군 무장장비관 참관(2.25,중방·중통)
- 전국 3대혁명소조원 열성자회의, 2.27 최영림·최태복·박도춘·김평해·곽범기 등 참가下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2.28,중통)
  - 김정은 노작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전달 및 제시된 과업 관철을 위한 대책적 문제 토의

## 나. 군사

### ● 북한군, 대규모 동상환자 발생...탈영·약탈도 속출(종합)(2/26,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이 작년 말부터 군사훈련을 강화하면서 군 기강 문란 등 부작용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26일 전함.
- 정보 당국의 한 소식통은 26일 "북한군은 최근 '훈련 열풍'을 강조하면서 고도의 전투훈련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규모 군인 동상 환



- 자와 탈영자·민간 약탈자, 구타 및 가혹행위, 함정 좌초 사고 등 군 기강이 해이해지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고 밝힘.
- 이어 “북한군은 60~70대를 50~60대로 대폭 세대교체하고 있다”면서 “비대칭 전력은 전체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재래식 전력은 가용 예산이 미치는 부분만 선별적으로 증강하고 있다”고 말함.

## 다. 사회문화

### ● 北, 산간지역 농업 확대 전망(2/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국토환경보호교류사의 김광주 상급고문은 조선중앙통신과 인터뷰에서 “2015년까지 퇴화된 경사지들에 임농복합경영을 확대할 데 대한 목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25일 통신이 전함.
- 그는 “초기에는 산림 토지에 나무와 농작물, 약소, 산나물, 방목 등을 입체적으로 배합한 경영방법을 받아들이면서 점차 확대해갔다”며 “농작물 지배에서는 강냉이(옥수수)대신 밭벼를 많이 심으면서 경사지의 특성에 맞게 작물배치를 다양화했다”고 임농복합경영의 성과를 소개함.

### ● 北 “위성 과학자·핵실험 공헌자 적극 따라 배우자”(2/25, 노동신문)

- “우주를 정복한 위성과학자들과 제3차 핵시험(핵실험) 성공에 공헌한 애국자들의 투쟁정신과 창조 기풍을 적극 따라 배워야 한다”고 독려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5일 전함.
- 신문은 이날 ‘핵과 위성을 가진 강국의 기상으로 최첨단 돌파전을 더욱 힘있게 벌이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우주기술, 핵기술과 같은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가 이룩됐다”며 이같이 강조함.
- 사설은 “이룩한 성과에 토대해 최첨단 돌파전을 벌여나감으로써 금속, 채취공업, 경공업, 농업을 비롯한 응용기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반적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당당히 올려세워야 한다”며 “최첨단 돌파전을 힘있게 벌이는 것은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경제강국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라고 주장함.

##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 北 “유엔에 ‘광명성 3호’ 위성 등록”(2/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작년 12월12일 발사한 ‘광명성 3호 2호기’를 인공위성으로 등록하는 문건을 유엔에 제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밝힘.
- 통신은 이날 “광명성 3호 2호기가 성과적으로 발사된 것과 관련해 조선은 ‘우주공간으로 쏘아올린 물체들의 등록과 관련한 협약’ 체결국으로서 위성등록을 위한 문건을 유엔에 제출했다”고 보도함.
- 이어 유엔우주사무국이 ‘광명성 3호 2호기’에 관한 문건을 작성해 웹사이트 위성등록부에 게재했다며 “유관 국제법들에 따라 합법적 절차를 거쳐 진행된 조선의 위성등록사업이 완결됐다”고 설명함.

#### ● 北·해외 합작영화, 내달 미국 첫 상영(2/27, 연합뉴스)

- 북한이 영국, 벨기에와 합작해 만든 예술영화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가 오는 3월 미국에서 처음 상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27일 전함.
-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는 오는 3월 미국에서 열리는 마이애미 국제영화제와 샌프란시스코 CAAM 영화제에 공식 상영작으로 초청받았다고 이 영화의 웹사이트가 전함.

#### ● 北 “올해 외국인 체육관광 선보일 것”(2/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올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육과 관광을 동시에 즐기는 이른바 ‘체육관광’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밝힘.
- 통신은 이날 ‘올해 조선을 찾는 관광객 수가 늘어날 전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올해 새롭게 선을 보이게 되는 전문관광은 미니골프관광과 체육관광”이라고 전했으며, “미니골프관광에는 여러 나라 애호가들이 평양 룡라인민유원지에 꾸려진 미니골프장에서 승부를 가르는 것을 기본 일정으로 하면서도 명승지들에 대한 다양한 관광 활동들이 포함되게 된다”고 보도함.

- 北, 日대북제재조치 비난…“무자비한 징벌” 위협(2/2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단체인 6.15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는 28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일본의 제재 조치를 비난했다고 28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은 대변인이 담화에서 “지금 일본당국은 우리의 위성발사와 핵실험을 결코 들면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소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라며 “일본반동들은 총련 중앙 책임 일꾼들의 ‘재입국 불허’ 따위의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한 데 이어 고등학교 지원제도 적용대상에서 조선학교만 배제하고 보조금 지출을 중단시켰다”고 지적했다고 전함.

■ 기타 (대외)

- 北, ‘광명성-3호 2호기’를 인공위성으로 등록하는 문건을 유엔에 제출(2.26,중통)
- 최근 유엔우주사무소는 광명성-3호 2호기 등록과 관련 유엔공식문건(ST/SG/SER.E/662)을 작성하여 유엔우주사무소웹사이트 위성등록부와 유엔전자문서고웹사이트에 각각 게재함으로써 위성등록사업 완결
- 【중통 논평】 미국의 ‘키 리졸브·독수리합동연습’ 관련 ‘우리(北)가 당당한 핵보유국이 된 오늘 미국은 그것이 초래할 후과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北 3차 핵실험은 1차적 대응조치불과 지속 강조 위협(2.28,중통/조선에 대한 도발은 자멸을 의미한다)

나. 6자회담(북핵)

- 北 “美, 우리 로켓·핵무기 사정권 안에 있어”(2/27, 우리민족끼리)
  - 북한은 27일 “미국이 이제는 우리(북한)의 전략로켓과 핵무기의 사정권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위협했다고 북한의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가 27일 밝힘.
  - 이날 게재한 ‘바다 건너 한끝에 있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개인필명의 글에서 “우리 공화국은 자위적인 당당한 전략로켓 및 핵무기 보유국으로 됐다”면서 이같이 주장함.
  - 북한의 대외단체인 조국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소속의 한 개인이 작성한 이 글은 또 “만약 미제가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고립압살 책동에 미쳐 날뛰며

끝끝내 전쟁을 강요한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강력한 군력으로 지구 상에서 미국이라는 악의 근원을 송두리째 없애버릴 것”이라고 강조함.

기타 (6자회담(북핵))

- 미국의 '韓美 전시작전준비훈련' 등과 '키 리졸브·독수리' 합동연습계획 등 관련 '美 호전광들은 당당한 핵보유국인 北을 건드리는 것이 어떤 결과를 빚어낼 것인가 하는 것쯤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2.25,중통·노동신문·평방/호전광들은 자비를 바라지 말라)
- 北, '3차 핵실험'을 "자위적 조치의 일환"이라고 對美겨냥 지속 주장 및 "오늘날 핵무기는 결코 미제의 독점물이 아니다"고 위협(2.25,중통·노동신문·평방/우리의 정당한 자위적 조치는 누구도 시비할 수 없다·나라의 자주권 수호를 위한 실질적 대응조치)

### 3 대남 동향

● 北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은 군사적 도발행위”(2/27, 연합뉴스)

- 북한은 27일 한미연합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연습에 대해 “노골적이며 계획적인 정치군사적 도발행위”라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전함.
- 통신은 ‘공화국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정치군사적 도발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은 북침전쟁 연습소동을 벌여놓고 일촉즉발의 화약고에 불뿔치를 던지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함.
- 논평은 “키리졸브·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의해 근 두 달간에 걸쳐 실전을 가상한 전쟁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게 된다”며 “전면전쟁의 불집을 기어이 터뜨리려는 매우 위험천만한 군사적 움직임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함.

● 北 “한반도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 몰려온다” 위협(2/2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8일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연습을 앞두고 또다시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몰려온다”며 전쟁 위협 공세를 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전함.
- 이날 ‘조선(북한)에 대한 도발은 자멸을 의미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흐름에 역행해 기

어이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난하며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조선반도(한반도)로 몰려오고 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주장함.

- 중앙통신은 “우리(북한)의 이번 핵시험(핵실험)은 미국의 적대행위에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한 1차적 대응조치에 불과하다”며 “지금 우리 혁명무력은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면서 최후 공격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위협함.

#### ■ 기타 (대남)

- 李○○ 前 대통령의 집권 5년간 對北정책(비핵, 개방, 3000 추구) 비난 및 ‘現 남북관계 사태는 역적패당의 동족대결 책동의 필연적 산물’이라고 책임 전가(2.25,중통·노동신문·평방/북남관계를 여지없이 파괴한 반통일 죄악)
- 李대통령 재임時 ‘對美·日 관계 강화’에 대해 “사대매국행위, 특등매국노”라고 원색적 비난(2.25,평방/특등매국노의 죄악 1회 -민족의 존엄을 더럽힌 특등주구)
- 【중통 논평】 천영우 청와대 前 수석의 최근 기자회견 발언(北이 약자라는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다 등)은 ‘李○○역도가 퇴임연설에서 동족대결정책을 정당화 했던 꼴과 다를 바 없는 히스테리적 추태’라고 비난(2.25,중통)



1·2월

북한동향 일지

<1월 일자>

보도일자	내용
1/1, 중통·중방·평방	김정은·리설주, 1.1 모란봉악단 신년 경축공연 ‘당을 따라 끝까지’ 관람
1/1, 중통	黨중앙위·중앙군사위·국방위, 12.31 당의 문예정책관철에 선봉적 역할을 수행한 ‘모란봉악단 창작가·예술인들’에게 ‘감사문’ 전달
1/1, 중통·중방·평방·중앙TV	김정은 黨 제1비서, 1.1 새해 ‘신년사’ 발표
1/1,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와 리설주, 1.1 새해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1/2, 중통	국가과학원 등 과학기술부문 일꾼들과 교육기관 교원들 및 성·중앙기관 일꾼 등, 모란봉악단 신년경축공연 관람 선전
1/4, 중통	최영림(내각총리), 평안남도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와 2.8직동청년단광 현지 요해
1/4, 중통	인민무력부, 1.4 ‘김정은 신년사 과업관철 군인결기모임’ 4.25문화회관에서 진행
1/4, 중통	김영남·박의춘, 1.4 미얀마독립 65돌 즈음 同國 대통령과 외무상에게 축전
1/7,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전국 소학교·유치원·탁아소어린이들에게 ‘당과류’ 선물
1/7, 중통	조일민(반제민전·평양지부 대표), 1.7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反통일세력의 전쟁책동 저지 및 南北공동선언 이행’ 강조 중통 기자회견 진행
1/8, 중통	박의춘 외무상, 1.7 新任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총서기 ‘레 르엉 밉’에게 축전
1/9, 중통	최룡해(총정치국장), 국가과학원 잔디연구소 개건정형 현지요해
1/10, 중통	강석주(내각부총리), 1.10 中 정부 경제무역대표단(단장 : 리금조 상무부 부부장) 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 및 김정은 黨 제1비서 선물 접수
1/15, 중통	박의춘(외무상), 1.15 이임 駐北 세계식량계획(WFP) 대표와 담화
1/17,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광명성-3호 발사 관계자들에게 성의를 다한 평양고려호텔 등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감사’ 전달
1/19,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618건설돌격대를 적극 지원한 근로자 김태룡(청소년과외교양지도국 연구사) 외 9명에게 감사
1/19,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완공단계에 이른 대성산종합병원 시찰
1/20,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시리아·나이지리아·콩고·우간다·에티오피아 대통령 등 김정일 사망 1돌 전문에 대해 답전
1/21,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양정옥(수도여객운수지도국 산하단위 지배인) 등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1/23,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을 지원한 근로자 등에게 ‘감사’ 전달
1/24, 중통·중방	최영림(내각총리),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건설정형과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1강철직장 및 보산제철소 강철생산정형 요해
1/26, 중통·평방	김영남, 1.26 ‘인도의 날’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

1/27,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 협의회’ 소집 및 지도
1/29,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1.28 ‘제4차 세포비서대회’ 참석 및 개회사
1/30,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제4차 세포비서대회’ 연설·폐회사 등 2일 회의 진행(각급 단위 세포비서들 토론 및 ‘맹세문’ 채택 등) 및 폐막



<2월 일지>

보도일자	내용
2/2,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함흥시에 모시는 사업에 충정을 바친’ 혁명사적지건설관리국 함경남도여단 등 ‘감사’ 전달
2/2,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제4차 당세포비서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
2/9, 중통	최룡해 총정치국장, 평양 문수물놀이장 건설장 현지요해
2/12,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원군사업과 중요대상건설 지원 일꾼·근로자들(농업과학원 연구사, 칠성각 종업원 등)에게 ‘감사’ 전달
2/14,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2.14 故 권상호(군 장령,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에 화환 전달
2/15, 중통·중방·중앙TV	김정은 黨 제1비서, 2.15 김정일 이름이 새겨진 시계표창 첫 수여식 참석
2/15,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산원에 ‘산골’ 전달
2/16,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2.16 리설주와 함께 ‘김정일생일’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2/16,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2.16 만경대혁명학원에 건립된 김일성-김정일 동상 제막식 참석
2/17, 중통·중방	김영남, 2.17 재일본조선인예술단(단장 : 하영수)과 평양대극장에서 담화
2/18,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2.18 故 김락희(최고인민회의 대의원(새각 명예참사) 빈소에 화환 전달
2/21, 중통·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오중흠7연대칭호를 수여받은 제323군부대 시찰
2/22, 중통·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제526대연합부대 관하 구분대의 실탄사격을 비롯한 공격전술연습 지도
2/22, 중통·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건설장 시찰
2/23,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항공 및 반항공군·제630대연합부대 비행훈련과 항공육전병 강화훈련 지도
2/26,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포병화력타격훈련 지도
2/26,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장병들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공연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관람 및 ‘감사’ 전달
2/26,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고경달(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정순원(황해남도수산관리국 산하 단위 지배인)·오순진(동림광산기계공장체육단 역기책임감독)에게 70회 생일상 전달
2/27,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제3차 핵실험 성공 위훈자들과 사진 촬영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